

바로 지금, 여행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4.09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원주



고래가 들려준 이야기, 울산 남구

02-799-9175
| 01 | 문화관광

신령한 나무를 찾아, 원주 나무 기행



울산 남구



바로 지금, 여행

09

고래가 들려준 이야기, 울산 남구 | <선재 업고 튀어>부터 야경까지, 수원의 낮과 밤 | 축제의 계절, 가을 추천 여행지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설키문의 02 2254 4903



WITH YOU THROUGH
THE CRUX




ARC'TERYX

CONTENTS

2024.09

050 테마 여행 울산 남구

고래문화마을에서 옛 장생포를 재현한 추억의 공간을 거닐고, 울산문화예술창작촌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장생포의 역사를 보았다. 아득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래와 함께 살아온 울산 남구 곳곳을 여행했다.



직장인의 아웃핏

BRENTWOOD

브렌우드 대리점 개설 문의 : 02)3677-7209

코오롱인더스트리(주) FnC부문

경기·인천 시흥점 / 화성 봉담 트레보점 / 안양 플러스아울렛점 / 용인 죽전점 / 인천 엘리웨이 / 안양 명학점 대전·충청 대전 송촌점 / 세종 마크원 예비뉴점 / 예산 내포점 / 서산 중앙점 전라·제주 전주 평화점 / 전주 인후점 / 전주 메가월드점 / 군산점 / 광주 첨단점 / 광주 세정점 / 목포 하당점 / 여수 여천점 / 신제주 노형점 부산·경상 부산 대청점 / 대구 칠곡점 / 대구 호림점 / 경산점 / 김천 조이코오롱

2024.09



016

우연한 발견

<문경>의 문경과 <진주의 진주>의 진주처럼 작은 도시를 여행하는 작은 영화를 보았다.

020

에디터 자유여행

서울 국립한글박물관의 <사투리는 못 참지>, 정말 참지 말고 가야 하는 전시다.

026

맛집 탐방

돌담 따라 이어지는 서울 서순라길에서 미와 맛을 추구하는 맛집을 찾았다.

032

미니 인터뷰

실험적인 공연 <없는 시간>을 연출하고 무대에 오른 배우, 김신록과 대화를 나눴다.

068

기차 타고

수백 년간 강원도 원주의 산천을 굽어본 거대하고 신령한 나무들을 만나러 간다.

076

이 계절 이 여행

행궁동 골목을 거닐고 화성행궁 야경을 감상하며 경기도 수원에서 낮과 밤을 보냈다.

082

촬영지 여행

<언니네 산지 직송>부터 <헤어질 결심>까지 경남 남해는 화면에서도 눈부시게 빛난다.

088

먼 나라 여행

제대로 쉬고 마음껏 노니는 리조트, 홍콩 오션파크에서의 하루는 유독 짧다.



KORAIL INFORMATION

104

코레일 소식

11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12

열차 이용 안내

11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A2 전용목장

플러스2. EFL공법

100% A2우유

들어가는 글



두 팔을 둘러 끌어안을 만큼의 둘레를 아름이라 하고,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큰 나무를 아름드리나무라 합니다.
 강원도 원주를 여행하며 아름드리나무를 여럿 보았습니다.
 800년 세월을 곳곳이 버티고 선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지정면 소금산에서 울창하게 자라난 소나무,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나 한 세기를 더 산 강원감영 느티나무.
 나무 곁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도 만났습니다.
 원주의 산천에 얽힌 무수한 이야기를 몸으로 기억하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만가만 전달해 주시는 어른들.
 문화관광해설사 양한모, 박성남 선생님을 뵈고 있자니
 사람이 꼭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앓과 지혜, 경험과 느낌. 살아온 시간이 그린 고운 나이테.
 결코 길지 않은 수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나
 나무처럼 살 수 있다면, 주어진 삶이 헛되지만은 않겠습니다.
 널따란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지만,
 아름드리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KTX매거진> 부편집장 강은주

KTX 바로 지금, 여행
SEPTEMBER 2024

2024년 9월호 제21권 제9호 통권 제243호
2024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김수아 ksau@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꽃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Plus Pen 3000
P R I M E

유성볼펜으로 거듭나다

프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프러스펜 3000 수성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10주년 스카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제품으로, 꽃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스카프입니다. 심플한 코디에 화사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2024 울산고래축제

9.26 THU
9.29 SUN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



ULSAN
WHALE
FESTIVAL
2024

www.ulsanwhale.com

주최



주관






SEŽANA

© Slovenske Železnice

국경도시의 매력, 세자나

열차 타고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지난다. 슬로베니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 세자나로 향하는 길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열차 타고 국경을 넘는 경험, 이것이 불가능한 한국인에게 더욱 로망 같은 일이다. 슬로베니아 철도가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지나는 상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세 나라를 이동하는 이 열차의 요금은 단돈 8유로(약 1만 1900원). 30년 전에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는 상품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5시간에서 2시간으로 시간을 단축해 다시 선보인다. 150년 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에 처음 건설한 철도 노선을 따라 달려 더욱 뜻깊다. 열차는 이탈리아 북동부 항구도시 트리에스테에서 출발해 슬로베니아의 네 지역, 세자나·디바차·피우카·일리르스카비스트리차에 정차하고, 크로아티아 사피야네와 오파티야마틀리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리에카에도 도착한다. 열차가 닿는 두 번째 나라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는 알프스산맥에 걸쳐 있다. 와인 생산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인데, 기원전 켈트족이 이 일대에 자리 잡을 무렵부터 포도를 재배했다. 300년 넘게 이어진 북동부 도시 마리보르와 프투이의 와인 거러권 다름 또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와인이 지니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 준다. 슬로베니아는 비파바 계곡의 오래된 품종 이스트리안 말바시 아부터 레포스코, 피노 누아 등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한다. 거의 모든 와인이 자국에서 소비된다니, 한 번쯤 맛보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오른다.

다행히도 열차를 타고 세자나에 도착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비나크라시 와이너리를 방문해 와인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현지 와인을 천천히 음미한다. 아름다운 포도원 풍경을 둘러보며 슬로베니아의 전통 케이크 프리세카 지비나치를 곁들여 먹으면 그 순간이 더욱 또렷이 각인될 테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열차에 올라 가까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나 아까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출발, 지금 슬로베니아야." 이게 바로 국경도시의 매력이다. 

© Sternberger 2024



트리에스테에서 리에카로 가는 열차는 매일 운행하며, 이 상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판매한다.

WONJU DANCING CARNIVAL

2024.10.4.-10.6. 댄싱공연장 일원



첨단과 추억을 아우르는 그 건물

한국 제1호 수족관이 문을 닫았다. 프랑스 파리 폰피두센터 분관이 들어온다 한다.
한때 최고층 건물이면서 우리의 놀이터였던 곳, 서울 63빌딩을 추억한다.

기차나 전철을 타고 한강을 건널 때 저만치 보이는 63빌딩의 자태가 얼마나 눈길을 끄는지. 일출과 일몰 시간, 한낮과 밤, 빛이 짙은 날과 구름 끼고 비 오는 날, 빌딩 색은 매 순간 달라진다. 고단한 근현대사를 건너 온 한국인이 '할 수 있다' 외치듯 쌓아 올린 건물은 인공물이면서도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어느새 서울의 한 풍경이 되었다. 서울을 말하는 사진을 찍는다면 꼭 들어갈 장면.

지하 3층에 지상 60층, 남산보다 1미터 낮은 해발 264미터 건물은 지금도 높지만 그때는 더욱 높았다. 직전 한국 고층 건물이 38층의 롯데호텔 서울, 31층의 삼일빌딩이다. 63빌딩은 1980년 2월 착공해 1985년 5월 준공하자마자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 마천루로 올라섰다. 직사각형을 벗어나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외형, 빛나는 금색 외벽도 화제였다. 지을 당시 외벽을 감싼 유리 1만 3516장 하나마다 실제 금 0.5그램을 넣었는데, 이 때문에 외부 빛을 반사해 빌딩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효과가 났다.

사람들은 휘둥그레져서 63빌딩과 놀았다. 한국 최초 수족관 '63씨월드'에는 50개 넘는 수조에 400여 종, 2만여 마리 생물이 관람객을 맞았다. 남극의 임금펭귄, 1.3미터 왕게, 바다코끼리를 여기서 처음 만났다. 가로 25미터, 세로 18미터라는 경이로운 화면 크기를 자랑하는 아이맥스 극장도 63빌딩이 최초다. 하이라이트는 물론 60층 전망대다. 시계가 50킬로미터에 이르러 인천 앞바다, 서울 동쪽 끝인 강동구까지 보이니 서울 전체가 들어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60개 층을 30초 만에 주파하는 엘리베이터의 어질어질한 속도도 큰 충격이었다.

63빌딩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1985년 7월 27일 일반인 관람을 시작한 이래 2년 4개월 만에 방문객 2000만 명을 돌파했다. 63씨월드·전망대·식당가의 황금 동선이 나들이 코스가 되었고, 크리스마스 갈

은 대목에는 63명 산타가 곳곳에서 나타나 선물을 안겨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1986년에는 63빌딩이 우표에 등장했고, 88서울올림픽 기간에는 외벽에 레이저로 대형 호돌이를 그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하기도 했다. 김현식·이문세·전영록·주현미·패티김 등 최고 인기 가수가 콘서트와 디너쇼를 진행하고, 한국 최초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데뷔했으며, 기자회견·시상식·패션쇼 같은 행사가 이어졌다.

63빌딩 하면 떠오르는 '수직 마라톤', 곧 계단 오르기 대회는 1995년 개장 10주년을 기념해 처음 개최했다. 1층 로비를 출발해 60층 전망대까지 1251개 계단을 오르는 숨 가쁜 대회로 역대 최고 기록은 남성 7분 15초, 여성 9분 14초다. 1개 층을 평균 7초에 주파한 놀라운 기록은 2003년 수립 이후 20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특이한 복장을 한 채 완주하는 참가자를 가리는 코스튬 부문도 매년 웃음을 유발한다. 63빌딩을 배경 삼아 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 매년 100만 명이 불꽃놀이를 즐기며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한다.

완공하고 39년. 사람도, 사회도 변해 한국 최고 높이 빌딩에서 은퇴한 지 오래지만 63빌딩은 여전히 첨단에서 추억을 아우르는 건물이다. 특별한 날 거기를 구경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 이에게, 수족관과 전망대의 기억을 간직한 이에게 이 건물은 전철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문득 과거 어느 날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지녔다. 누적 방문객 9000만 명의 63씨월드, 나중 이름 아쿠아플라넷63이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프랑스 파리 폰피두센터 분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다. 폰피두센터가 리모델링하면서 전 세계에 세 곳 내는 분관 가운데 하나가 63빌딩에 들어온다. 마티스·샤갈·칸딘스키·피카소, 가슴 뛰게 하는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 추억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새로운 추억이 자라나겠다. 높지만 제일 높지 않아 더 좋은 그곳에서.

6 3 B U I L D I N G



2024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9.23 MON — 10.06 SUN

지산동 고분군 및 대가야읍 일원



여행하는 영화, 영화로운 여행

<문경>에서 <변산>까지, '그곳'을 호명하는 영화를 만나 새로운 여정을 계획한다.



영화 <패터슨>은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조용한 삶을 그린다. 말하자면 '패터슨 씨의 패터슨시'랄까. 카메라는 패터슨이 버스를 모는 거리, 일 끝나고 들르는 동네 술집, 산책을 즐기는 공원 등 일상의 공간을 잡자코 쫓아간다. 심심하면서도 반짝거리는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면 패터슨이란 도시가 자못 궁금해진다. 패터슨의 동선대로 패터슨을 여행하는 상상도 해 본다.

미국에 패터슨이 있다면, 한국엔 문경과 진주가 있다. 이들은 주인공의 이름이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며 영화 제목이기도 한,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우연을 공유한다. 게다가 두 영화는 약 한 달간 시차를 두고 출현했다. <문경>은 8월 말 개봉해 지금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는 중이고, <진주의 진주>는 8월 말을 끝으로 상영을 마무리했다. 여행하는 영화, 소도시를 조명하는 영화의 연이은 등장이 반갑기만 하다.

<문경>은 직장 생활에 지친 문경의 일탈과 짧은 여정을 담은 로드 무비다. 야기던 후배의 고향인 경북 문경으로 떠난 문경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강아지 길순, 그런 길순을 돕고 반려인을 찾아 주려는 스님 가운과의 도치 않은 동행을 시작한다. 셋은 문경의 눈부신 산천을 함께 거닌다. 대야산 자락에 숨은 선유동계곡은 무릉도원 같고, 기암괴석 위에 올라앉은 주암정은 아득한 고사의 무대처럼 유려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따금씩 길순의 시점으로 문경을 비추는 장면이다. 색약에 가까운 강아지의 낮고 넓은 시야가 오솔길을 걷는 두 인간의 맨발을 가만히 응시할 때, 서로를 보듬는 존재들의 선한 온기가 화면 가득 어른거린다. 이들을 한데 끌어안은 문경의 넉넉한 품에 어깨를 기대고도 싶어진다. <문경>을 만든 신동일 감독은 부친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부터 영화가 탄생했음을 밝힌 바 있다.

영화감독 진주의 고군분투를 다룬 <진주의 진주>는 무심코 사라지는 귀한 것들을 붙드는 영화다. 촬영을 예정했던 카페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진주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경남 진주에서 새로운 촬영지를 물색하기로 한다. KTX에 올라 산 넘고 물 건너 진주에 도착한 진주. 내친김에 진주 로케이션 투어를 시작한다. 기와지붕이 근사한 진주역, 도시의 상징인 남강과 진주성, 복닥복닥한 진주중앙시장을 지나 간신히 발

견한 예스러운 카페 '삼각지 다방'. 문제는 이곳 또한 철거를 이틀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세기 동안 지역 문화계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 삼각지 다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괴짜 예술가들은 진주를 설득해 철거를 저지하고 이곳의 역사를 보존하려 한다. 진주는 우여곡절 끝에 발견한 '진주'를 지켜 냈을까?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축석루에 선 그의 표정이 한동안 잊히질 않는다. 영화 밖 현실에 존재하는 진짜 삼각지 다방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에 겨우 가슴을 쓸어내린다.

주인공과 도시가 동명인 영화라면, 충남 금산에 사는 노년의 신사 모금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도 빼놓을 수 없다. 암을 선고받은 금산은 서울에 기거하는 영화감독인 아들 스테반을 불러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촬영해 달라 요청한다. 이야기의 주무대는 물론 금산이다. 이발사인 금산의 금산 읍내 출근길, 아들 스테반이 귀향길에 들른 인삼랜드 휴게소, 금산이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하고 열연을 선보이던 부리엔 적벽강까지. 금산 출신 임대형 감독이 정성껏 담아낸 지역 곳곳의 풍광이 영상의 깊이를 한층 더한다.

이쯤에서 영화를 따라가는 여행을 계획해 길을 나서면 어떨까. <변산>에 등장하는 전북 부안 작당마을의 너른 갯벌, <춘천, 춘천>의 구심점이 되는 강원도 춘천의 청평사,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의 주인공들이 누웠던 고색창연한 전북 군산의 근대문화유산마을... 영화와 목적지의 목록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더 많은 도시가 조명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디든 떠나기 좋은 계절, '영화로운 여정'이 당신을 기다린다. **K**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

글로벌 체인 리조트로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뉴멤버십 '소노러스'와 '노블리안 블랙'을 출시했다. 멤버십 최초로 직계가족에 한해 무제한 등재 가능하며, '사용가능 입회금' 제도는 입회기간 내내 회원혜택에 추가할인이 적용된다.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18곳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을 4년간 회원요금의 30% 추가 할인된다.
골프(18h)은 멤버십 타입에 따라 최대 40% 제공되는 회원혜택에 2년간 10% 추가 할인 가능하다.
*소노펠리체 CC 비발디파크 WEST · 델피노 CC

II.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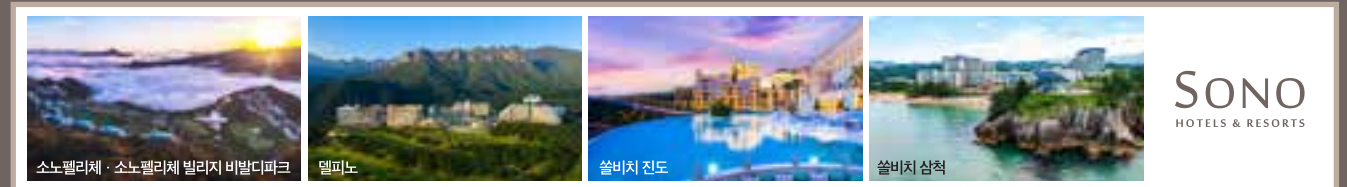
사용가능 입회금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 요금을 '입회금'을 사용해 추가 할인받는 제도이다. 입회기간 내내 최대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쏟아져 남해가 2025년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경주'와 '양양'도 완전히 리뉴얼 오픈 예정이며, 'SONO'는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움으로 무한한 가치를 제공한다.



▲ 쓸비치 남해 2025 그랜드오픈 예정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010-4140-6540**

주말 및 24시간 상담문의 **02)2222.5917**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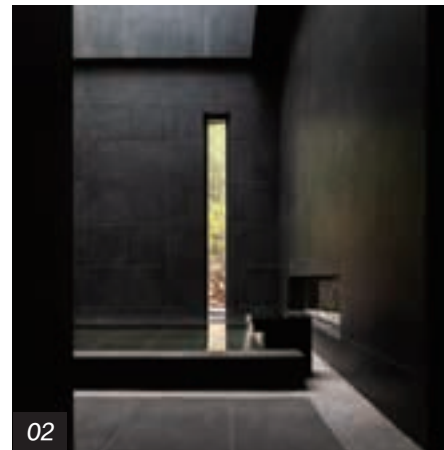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28만 원~ (식식 : 키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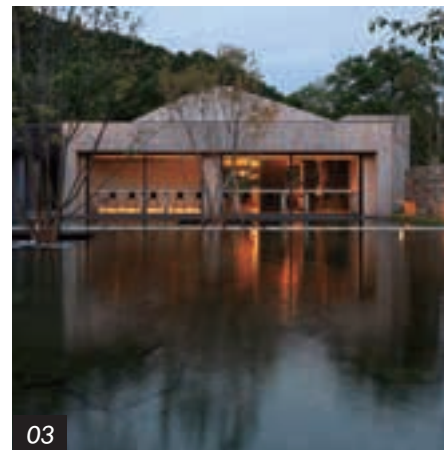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참사 지투 마리 요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를 다녀왔다. 아따, 마, 재미있드래요. 한번 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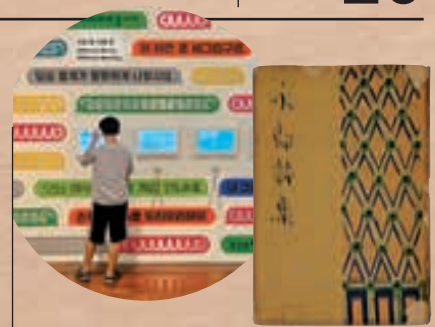


+ 국립한글박물관 <사투리는 못 참지!>전
2014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이 10주년을 맞아 사투리의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문헌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으로 사투리를 친근하게 만나는 자리다. 10월 13일까지 전시한 이후에는 박물관 개보수와 증축을 위해 1년간 문을 닫으니 기간을 기억하고 방문하자. 문의 02-2124-6200

“가가 가가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그 아이가 가 씨냐?’를 사투리로 한 말이었다.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은? 학교는 선생님, 핵교는 ‘손상남’이 가르친다. 재미있고 소중한 지역 언어 유산의 재발견. 표준어는 고상하고 사투리는 촌스러우니 고쳐야 한다던 시절을 지나 사투리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대가 왔다.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기획했다. 한글이라는 낱말에서 표준어만 떠올리는 이에게 사투리까지 한글이며 모두의 유산임을 알리는 전시다.

이 땅의 말

표준어와 방언이 무엇이고 인식이 어떠한지 짚는 것으로 1부를 시작한다. 18세기에 나온 책에도 이미 ‘서울말’을 권장하는 문구가 등장했으나, 19세기 실학자 위백규는 사투리를 비웃는 관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엔 학교에서 표준어를 권장해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꿔 쓰는 숙제를 내 주기도 했다. ‘뭇이 중헌디!’ 다양한 전시물을 보는 가운데 마음은 사투리로 기운다. 1부 전시 한 벽면을 차지하는 ‘팔도의 말맛’ 영상은 백미다. 화났을 때, 안타까울 때 등 여러 상황에서 강원, 경상, 서울, 전라, 제주, 충청, 평안, 함경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끝까지 관람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다. 그 옆 ‘사투리 능력고사’도 놓쳐선 안 된다. 노래 제목 ‘숨이 차’를 ‘썩빠지게 디다’, ‘있잖아’를 ‘야 야냐’로 바꾸는 등 웃음을 유발하는 문제를 풀다 사투리와 친해진다. 강릉 사람 울국 이이가 “대뜨번에 썩빠지가 빠져요. (중략) 내 말을 똑데기 들어야 돼요”라 주장하는 ‘10만 양병설’ 강릉 사투리 버전도 매력 넘친다.



풍경을 담은 말

시인과 소설가가 사투리를 작품에 남겨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2부에서는 김소월, 김영랑, 윤동주, 이육사, 박경리, 이문구, 최명희처럼 쟁쟁한 문인의 작품으로 사투리를 만난다. 윤선도, 이덕무 등 선인의 책 가운데 사투리를 언급한 부분도 해석해 보여 준다. 19세기 말 낯선 땅에 온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어 교습을 위해 지은 책이 뱀을 ‘비암’으로 기재하듯 일부가 사투리라 흥미로운데, 활동한 지역이나 만난 사람을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엔 유네스코가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한 제주어를 다루어 의미 깊다.



캐어 모으는 말

화가 이중섭이 담배 은지에 그림을 그렸다면 학자는 담배 보루 포장지에 사투리를 받아 썼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 언어 연구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가 사투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간첩으로 오인받으면서 방방곡곡 찾아가 언어를 캐물어 채집하고, ‘인간문화재’급 사투리 구사자를 만났으나 녹음기·수첩이 없는 상황에서는 담배 포장지에까지 받아 적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아직 사투리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 서가에 꽂힌 <에린 왕자>가 전시장 나서는 길을 배웅한다. “예를 들어 나가 오후 네: 시에 온다 허든 난 세: 시부터 기분이 좋:아질 것이여.” 말맛이 제대롭다.

국립한글박물관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세스는?

에너지센스,
우리모두
함께 해볼까요!



- 냉방할 때는 문을 꼭 닫기!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당신의 에너지센스!

온도주의 PROUD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

예술 도시 광주에 가면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9월, 오감이 즐거워지는 다양한 제품을 모았다.



GWANGJU

썩소초코파이

1—썩소초코파이

썩과 제철 특산물을 활용해 디저트를 내놓는다. 썩소초코파이는 총 여섯 가지 맛으로, 인절미 크림과 찹쌀떡을 넣은 '해풍 썩 인절미'와 딸기를 직접 끓여 만든 수제 휘레가 들어간 '논산 딸기'가 인기. 국내산 밀을 사용한 빵에 마시멜로 대신 신선한 생크림을 가득 담고, 색소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건강을 고려했다. 문의 @sooks_bakery

들락

2—프로젝트 앨범 <예언> LP

들락(DLAC)은 아시아의 개성을 담은 상품을 선보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자체 브랜드다. 아시아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앨범 <예언>이 탄생했다. DJ 소울 스케이프가 작·편곡과 프로듀싱을 맡았고, 윤석철·김오키 등이 연주에 참여해 한국 재즈 사운드를 담았다. 민요 '밀양아리랑' '자진모리' 등을 수록했다. 문의 @acc_dlac_shop

꿈브루어리

3—꿈의 대화 약주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 술 약주·청주 전통 주류 부문 대상을 받은 제품. 광주의 쌀, 전통 누룩, 물만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빚은 술은 전통 옹기 항아리에 넣고 100일 이상 숙성·발효해 완성한다. 벼를 껍질째 빵아 디딘 전통 누룩을 베이스로 양조해 특유의 과일 향과 맛이 매력적이다. 독특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문의 @kkumbrewery

역사사소

4—투리투리캐릭터 엽서

아름답고 정겨운 사투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캐릭터 피피, 마우, 이이, 리비와 마리앙이 엽서에 등장한다. "아이~ 밥은 먹고 땡가냐?" "심내야!" "나 좀 카만 냅도야" 등 캐릭터의 표정과 어우러지는 사투리 문구가 눈길을 끈다. 리소 인쇄 기법을 활용해 엽서 색감이 빈티지하다. 문의 @buy.here2015

몽상블라주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The Assemblage of Dreams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정영창
엘 아나추이
김형숙
김기라
루 양
박동화
박문종
태미 응우옌
투안 마미
윌리엄 켄트리지

Apichatpong Weerasethakul
Chung Yong-chang
El Anatsui
Kim Hyung-sook
Kim Kira
Lu Yang
Park Donghwa
Park Moon-jong
Tammy Nguyen
Tuan Mami
William Kentridge

Opening 9. 3.Tue 3PM

24.9.3 — 12.8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100퍼센트 국산 쌀 과자

오리온 뉴릉지 4.4점

강은주 우아, 맛있다! 생애 처음 맛있다고 느낀 쌀 과자, 뉴릉지다. 쌀 과자 특유의 고릿한 풍미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건 은은한 단맛만 감돌아 자꾸 집어 먹게 된다. ★★★★★ / **남혜림** 그간 얼마나 많은 뉴릉지 과자를 먹어 왔던가! 뉴릉지를 사랑해서 제품명에 뉴릉지가 붙은 과자를 섭렵했다. 하지만 이보다 완벽한 과자는 없었다. 달콤하고 바삭한 뉴릉지, 지금 바로 사러 갑니다. ★★★★★ / **김수아** 고소하고 짭조름한 이 맛, 여러 번 먹어 본 쌀 과자네요. '뉴'릉지라는데, 새로운 점을 모르겠다. 조금 더 달다는 것 정도? 하지만 자꾸 생각나는 건 왜인지... ★★★★★ / **김현정** 스폰지밥을 닮은 캐릭터가 100퍼센트 국산 쌀을 썼다고 자랑한다. 오오, 자랑할 만하네. 뉴릉지와 과자 사이 어딘가, 정확한 지점을 짚었다. 뉴릉지는 당장 없고 과자는 별로일 때 딱 생각날 맛. ★★★★★

3.5점 피코크 둥근달 수수팔호떡

강은주 혁,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이다. 동네 오일장 수수부꾸미와 약 85퍼센트 싱크로울을 자랑하는 맛. 파는 곳이 흔치 않아 발견할 때마다 홀린 듯 사 먹는데, 앞으로는 이 제품을 쟁여 두면 되겠다. ★★★★★ / **남혜림** 베어 물자마자 멈췄다. 매우 달 것 같다는 예감이 깨졌다. 즐거운 수수피 안에 숨은 통팥 앙금은 단맛보다 짭조름한 맛이 돋보인다. 오후 4시, 간식으로 먹기에 딱이다. ★★★★★ / **김수아** 팔과 호떡, 어울리는 조합임에도 앙금이 단 데다 수수피가 기름져 시원한 음료로 입안을 헹가야 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팬에 구우면 좀 괜찮으려나? ★★★★★ / **김현정** 팔 때문에 빙수 안 먹는 일인으로서, 밀려오는 팔의 향연에도 정신 차리고 맛보려 애썼다. 수수피가 쫄깃하네요. 팔은 삼킨 다음 잊어서 평가 불가. 죄송합니다. ★★★★★



한국민속촌과 피코크가 손잡고 만든 '조선미식' 시리즈

할머니도, 손주도 사랑할 맛
명절맞이 주전부리

뉴릉지, 호떡, 모나카, 양갱이 한 곳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할 제품이다.



쌀 전분과 해바라기씨 오일로 제조한 식물성 아이스크림

올티브 모나카 밤맛 3.8점

강은주 어라, 밤 맛이라는데 왜 초당옥수수 맛이 더 강하게 풍기는 걸까.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대안 식품으로, 유당불내증인 이에게 '강추'한다. ★★★★★ / **남혜림** "체험기 목록이 대체로 달콤해서 헤림 씨 취향이네요"라고 은주 선배가 말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밤도, 계피도 아닌 애매한 맛의 모나카는... 밤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 / **김수아** 당류 3그램, 식물성 아이스크림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 밤보다는 호떡 속 꿀이 떠올라 포장지를 확인하니 '호떡 맛 농축 시럽'이라 적혀 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 / **김현정** 정보를 모르고 먹었다가 '아이스크림 맛이 좀 생소하네, 원인이 뭐지?' 했다. 답은 비건. 우유 없이 이 정도까지 만들다니, 감탄이 나왔다. 비건 연구자님들, 오늘도 힘내세요. ★★★★★

3.8점 정관장 사색양갱

강은주 후후, 이런 게 아로마 세러피인가. 대둔산 대추차가 생각나는 농밀한 맛과 향. 야금야금 씹어 넘기는데 발끝이 후끈한 게, 금세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대추양갱이다. ★★★★★ / **남혜림** 패키지가 고급스러워 반했다. 그런데 다디단 양갱에 홍삼이라니! 겁이 나서 통팔양갱을 선택했다. 팔고물과 팔앙금을 25퍼센트 이상 함유해서 일까, 입안은 팔의 향연 그 자체. 아유, 벌써 다 먹었다. ★★★★★ / **김수아** 시큼한 구기자 향을 맡자마자 표정 '구기'고, 앞으로 베어 무니 예상외로 익숙한 맛이다. 아, 내가 먹는 한약 맛이구나... 활기를 복돋아 준다는 문구에도 더 먹는 건 포기. ★★ / **김현정** 홍삼양갱이라면서요... 홍삼은 6.5퍼센트, 팔 종류는 54퍼센트 넘게 들었다. 홍삼을 이만큼 넣은 것도 대단한 일일겠지만, 이름은 팔홍삼양갱으로 바꿔 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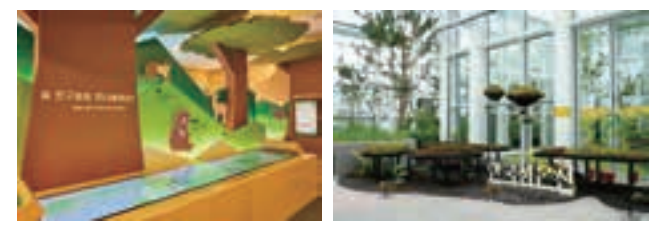
대추, 통팥, 구기자, 홍삼을 충실히 담은 프리미엄 디저트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섬과 연안의 생물다양성 이야기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We invite you to visit the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located in Mokpo, the last stop of Honam Line.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

호남선의 시·종착역인 목포. 학의 날개를 닮은 목포대교를 건너 목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유달산 아래에 있어 고하도(高下島)라 불리는 섬에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있다.

2020년에 문을 연 이곳은 우리나라 섬과 연안의 생물자원을 조사·발굴 보존하며, 생물자원이 가진 유용성을 탐색하여 산업적 가치를 부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전문 연구기관이다.

더불어 섬·연안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온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섬·연안 생물자원 전시·교육 공간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면 자원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과 온실,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 경험 해 보자. 섬·연안 생물들의 생생한 표본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엄선된 주제로 매번 새롭게 진행되는 기획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20 여종의 제주 자생생물과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생약자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제주생물자원, 생약이 되다'가 진행 중이다.

올해 5월 오픈한 '한국섬온실'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 섬·연안 식물자원의 연구, 전시를 위한 이곳에는 현재 울릉도 등의 한반도 섬에 사는 153종의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생물자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야외놀이터와 어린이체험실, 50여 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도 운영 중이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전략지이기도 했던 고하도, 그곳을 지키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 섬과 연안의 생물자원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서순라길 미식 산책

서울 종로구 종묘, 돌담을 따라 이어지는 서순라길에서 미와 맛을 추구하는 맛집을 찾았다.



카페사사



☞ 사사 한상차림 9300원 과편 8600원
📍 서울시 종로구 서순라길 147 @sasa_seoul

카페사사_서순라길 끝자락, 돌담을 앞에 둔 2층 한옥이 대문을 연다. 손정운 대표는 돌담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근처 풍경이 숲 같다고 느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는 의미를 담아 카페 이름을 '사사'라고 지은 이유다. 메뉴는 한옥, 돌담 등 이곳을 구성하는 요소만큼 예스럽다. 소반에 식혜 혹은 수정과와 구운 가래떡을 곁들여 내는 사사 한상차림만 보아도 그렇다. 전통 주병에 담긴 보리 식혜를 잔에 따라 조금씩 맛본다. 은은한 보리 향을 느낀 후에는 구운 현미 가래떡을 한 입 베어 문다. 조청과 인절미 가루를 뿌려 달콤함과 고소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인절미와 썩을 반죽에 첨가한 파운드케이크, 가을에 출시할 밤 파운드와 라테 등 손 대표는 한국 식재료를 디저트를 만들거나 전통 다과를 재해석하는 데에 노력을 쏟는다. 과일 푸레와 청포묵 가루를 섞어 굳힌 인기 메뉴 과편은 제철 과일을 사용해 때마다 맛이 다르다. "사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식혜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문득 바람이 불고 돌담 근처의 나무가 덩달아 흔들리니, 과연 손 대표의 말처럼 마음이 잔잔해지는 공간이다.

☑ 카페사사 대표가 추천하는 종로 맛집 창덕궁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천하보쌈'이 있어요. 이곳 보쌈 정식을 자주 먹으러 가곤 해요. 특히 김치가 정말 맛있답니다.



TRAVEL TIP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종묘 서쪽, 서순라길이 눈길을 끈다. 서순라길이란 이름은 조선 시대 종묘를 순찰하던 순라청 서쪽 길이라는 뜻인데, 돌담길이 길게 뻗어 예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최근 이곳에 전통문화를 접목해 특이한 콘셉트를 내세운 카페와 바,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 음식을 내는 가게, 퓨전 한식과 와인을 판매하는 주점 등이 미식가의 걸음을 이끈다. 퓨전 한식을 맛본 후 인근 종묘나 창경궁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도 좋겠다.





👍
 노우즈 창덕 대표가 추천하는 종로 맛집
 어둡한 저녁에 서순
 라길을 찾으시나요?
 크래프트 맥주를 판
 매하는 '서울집시'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쌓인 피로를 단번에
 날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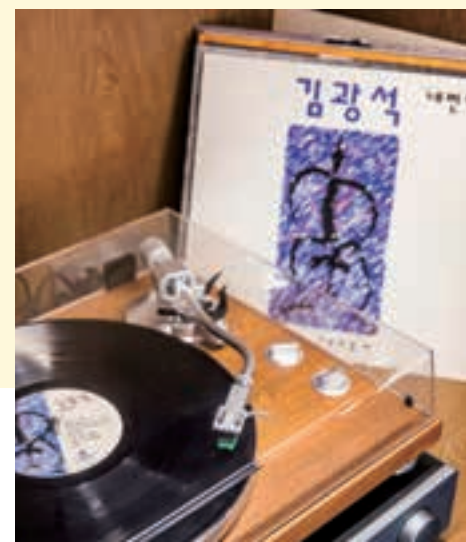


☕ 점심한상 1만 8500원 누룽지 라떼 5800원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88-1 @knowsproject



노우즈 창덕

노우즈 창덕_햇살이 따갑지 않은 날, 별 잘 드는 통창
 가까이 앉아 콜드브루 커피를 마신다. 컵에는 1970
 년대와 1980년대를 풍미했던 옛 가요가 감미로이 맴
 돈다. 점심쯤 '노우즈 창덕'을 방문한다면 맞이할 광경
 이다. 메뉴판을 펼쳐 연어 오픈 샌드위치와 수프가 나
 오는 점심한상을 주문한다. 매장에서 갖 구운 막대 모
 양 페이스트리에 과카몰레 소스와 연어, 달, 캐비아
 등을 얹는다. 샌드위치 옆에는 스크램블드에그와 알
 감자구이, 된장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두어 든든한
 브런치 한 상을 완성한다. 버터 향이 풍부한 오픈 샌
 드위치는 노우즈 창덕이 제공하는 흑단, 목련, 오얏꽃
 등 콜드브루 커피와의 페어링을 고려해 개발한 메뉴
 다. "창덕점은 '빛다'를 키워드로 한국의 미와 여유로
 움을 표현하려 했어요. 주문 제작한 호리병과 딸랑거
 리는 소리가 나는 소리잔 등 커피를 담는 식기에도 신
 경을 썼습니다." 유명민 대표는 창덕점을 포함해 종각,
 여의도, 경기도 고양 등에서도 '노우즈'를 운영하고 있
 다. 유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지역과 가게
 가 잘 어우러지는 것. 음식뿐 아니라 문화, 과거와 현
 재까지 하나로 융합하는 가게에는 오늘도 국적 불문,
 다양한 손님이 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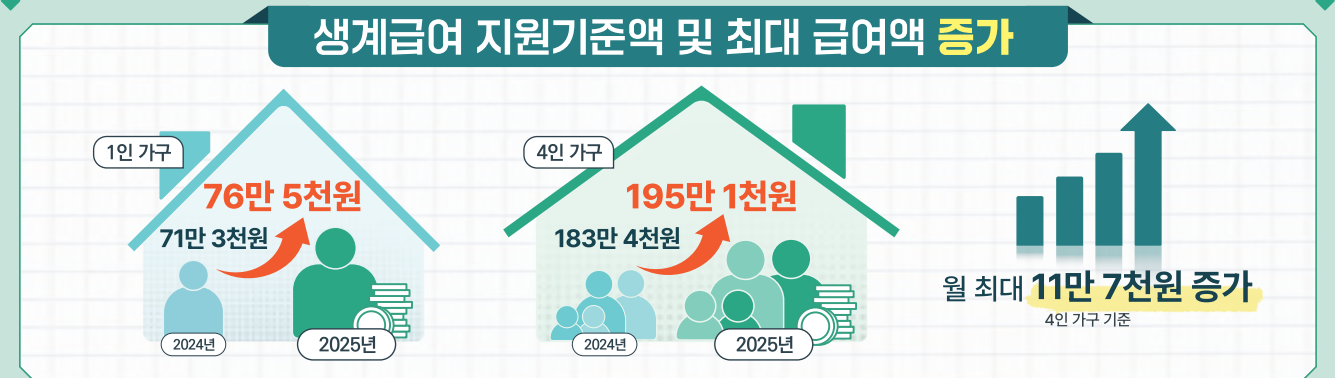


2025년, 약자복지가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 (6.42%, 4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222만 8천원	368만 3천원	471만 5천원	573만원	669만 6천원	761만 8천원
2025년	239만 2천원	393만 3천원	502만 5천원	609만 8천원	710만 8천원	806만 5천원

(단위: 원/월)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적극 해소

2024년	2025년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적용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75세 이상 노인은 20만원+30% 추가공제 적용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이다



▲ 물세비체 2만 4000원 트러플 감자 뇨끼 2만 8000원
 ① 서울시 종로구 서순라길 153 ② @ida_seoul

이다_바람이 솔솔 부는 야외에서 '돌담 뷰'를 마주한 채 식사와 와인을 즐긴다. 흥을 돋워 줄 메뉴는 신선한 회와 포도 피클, 핑거 라임에 토마토 워터를 부어 먹는 물세비체. 본래 세비체는 생선 회 등을 해초와 함께 레몬즙에 절여 먹는 페루 전통 음식이다. 정형우 대표는 이를 한국의 물회와 결합했다. 단정하게 플레이팅한 줄무늬전갱이 회 위에 파프리카와 허브 오일을 첨가한 토마토 워터를 부으니 꼭 물회처럼 보인다. 회 한 점에 포도 피클, 핑거 라임을 얹어 입에 넣자 새콤한 과일 맛이 제일 먼저 미각을 자극한다. 씹을수록 생선회의 담백한 맛과 오일의 고소한 향이 올라오고, 포도 피클 덕에 식감도 재미나다. "저희가 계절 식재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재료 본연의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메뉴에 변동이 많지요." 볏짚 판나코타, 육회 페이스트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식과 한국 식재료를 조합하고자 하는 노력은 메뉴판에 고스란히 남았다.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셰프가 이번에는 트러플 감자 뇨끼를 권한다. 콜리플라워, 마늘, 트러플, 감자가 어우러져 내는 깊은 맛. 요리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은 '이다'의 진심이 느껴져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대표가 추천하는 종로 맛집 참나무로 지은 한옥 '바 참'은 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정기적으로 시그너처 칵테일이 바뀐답니다.



추석 차례상 준비와 선물을 동행축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할인 판촉하는 전국적 소비축제



포방터꾸꾸미
 조윤식

해담한복
 김말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옥희방앗간
 문지연

맑고 밝고 따뜻한 협동조합
 권택상



존재 없음 경계 없음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해 온몸으로 말하는 이가 있다. 연극과 전시를 결합한 공연 <없는 시간>을 연출하고 출연도 한 배우 김신록을 만났다.

SYNC
NEXT
24

Q. 반갑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컨템퍼러리 시즌 '싱크 넥스트 24' 중 하나인 <없는 시간>에 출연하셨죠. 콘셉트, 구성, 연출도 담당하셨다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A.** 선형적인 흐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탈락한 시간을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여러 신체가 맞서 겨루고 서로를 침범하면서요. 이 작품을 만드는 작업은 '극장의 시간'에 대해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OTT, 쇼츠, 릴스가 유행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극장에 갈까, 문 닫힌 극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했어요. 혹은 극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고민했구요. 극작가 김연재가 쓴 간단하고 거친 서사에서 출발했고, 관객이 시간을 만져 보도록 시각예술가 손현선의 작품을 극장으로 들여왔죠.

Q. 손현선 작가와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작업하셨는지 궁금해요. **A.** 손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한 시각예술가임에도 공연 예술의 언어와 방식을 몸으로 탐색해 보려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5년 전쯤 몸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뷰 포인트' 워크숍에서 처음 만나 몇 차례 워크숍에 함께 참여한 이후 동료 예술가들과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토론하는 스터디 모임을 꾸려가고 있어요. 각자 관심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작업을 지켜보는 시간이 쌓여 자연스럽게 협업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나는 대화는 그간 해 온 이야기의 연장이었지만, 연습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질문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극장에 있는 모든 존재는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모두 뒤섞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신록 © 사진: 김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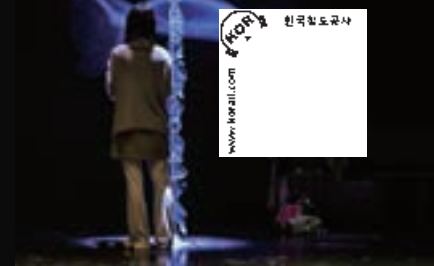


Q. 무대 특성상 객석과 거리가 가까웠어요.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의 표정이 잘 보였을 텐데, 긴장되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A.**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관객의 팔다리가 배우의 팔다리와 함께 배치되었으면 했습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어 관객도 얼굴에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관객이 더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디 그 경험이 관객의 몸과 마음을 흔들었기를 바랍니다.

Q. 2023년에 출간한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에서 "연기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배우의 몸으로 탐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밝히셨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나요? **A.** 큰 토대가 되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기에 따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조금 더 표면으로 건져 올린 대답을 하자면, 요즘 저는 모든 개체의 신체를 조각내고, 그 조각난 신체들의 경합을 통해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Q.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르마다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A.**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를 매체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장르의 매력이 곧 그 장르에서 연기하는 매력과 일맥상통한달까요. 연극은 극장에 모인 모두가 약속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이 좋습니다. 한편 감독이라는 하나의 눈이 작동해 전체를 장악하는 영화는 편집으로 모든 장면이 새롭게 조정되는 순간이 마치 마법 같아요. 드라마는 촬영 전에 대본이 다 나오는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찍으면서 뒤 내용을 알게 되죠. 그러니 사전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해요. 극의 흐름을 바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매력 있고, 중요할 줄 알았던 장면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Q. 배우님의 연기를 좋아하는 분을 위해 앞으로 만날 작품 얘기도 들려주세요. **A.** 하반기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와 넷플릭스 영화 <전,란>이 공개될 거예요. 두 작품 모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은 내년 상반기에 방영할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촬영하는 중이에요. 국정원 직원이 고등학교에 잠입해서 고중 황제 때 누군가 숨겨 놓은 금괴를 찾는 내용인데, 저는 비리를 저지르는 명문 사학의 이사장 역을 맡았습니다. 작품을 만들며 발견한 연기의 방식을 은밀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K**



김신록 2004년 연극 <서바이벌 캘린더>로 데뷔한 이후 연극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마우스피스>, 드라마 <지옥> <재벌집 막내아들> 등 무대와 영상을 오가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 주고 있다. 세상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자기 세계를 확장해 가는 그는 2023년 배우 스물다섯 명과 두 차례 만나 연기에 관해 치열하게 묻고 답한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를 출간했다.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목표는 끝없는 사유로 새로운 질문과 계속 맞닥뜨리는 것이다.

what's up



Museum Bhavan -Dayanita Singh



Interview: The Crystal Ball of Pop Culture -Andy Warhol



Interview: The Crystal Ball of Pop Culture -Andy Warhol © 2024 Steidl

• EXHIBIT •

<슈타이들 북 컬처: 매직 온 페이퍼>

→ 서울 → 09.14~2025.02.23

보고,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듣는다. 종이책 명장,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의 작품을 즐기는 방법이다. 레이아웃 디자인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완벽한 과정 아래 책을 제작하는 독일 출판사 슈타이들. 아트 북, 매거진, 문학 등 약 1000권에 달하는 도서를 한 공간에서 만난다. 슈타이들과 영국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가 10년간 함께 작업한 <파머시 런던>을 포함해 25점 이상의 아트 북 오브제 '멀티플'도 공개한다.

장소 서울 그라운드스시소 서촌 문의 070-4473-9746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9월 17일~25일)



FSW 2024
FESTIVAL SHIWOL

BPAM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문화골목

2024. 10. 4. Fri — 10. 8. Tue

부산국제 공연예술마켓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후원/협력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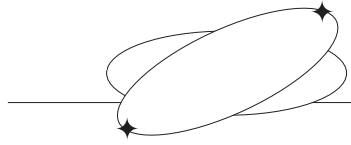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공연로_Pick_이다



what's up



• FESTIVAL •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09.27~10.06

800년 전부터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문화 자산으로 전승한 안동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탈과 탈춤을 모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펼친다. 탈로 얼굴을 가려 경계가 희미해지고, 탈놀이 대동 난장 퍼레이드에 참여한 모두가 춤으로 하나 됨을 느낀다. 흥과 끼를 발산할 기회다.

장소 경북 안동 원도심 및 탈춤공원 일원 문의 054-840-3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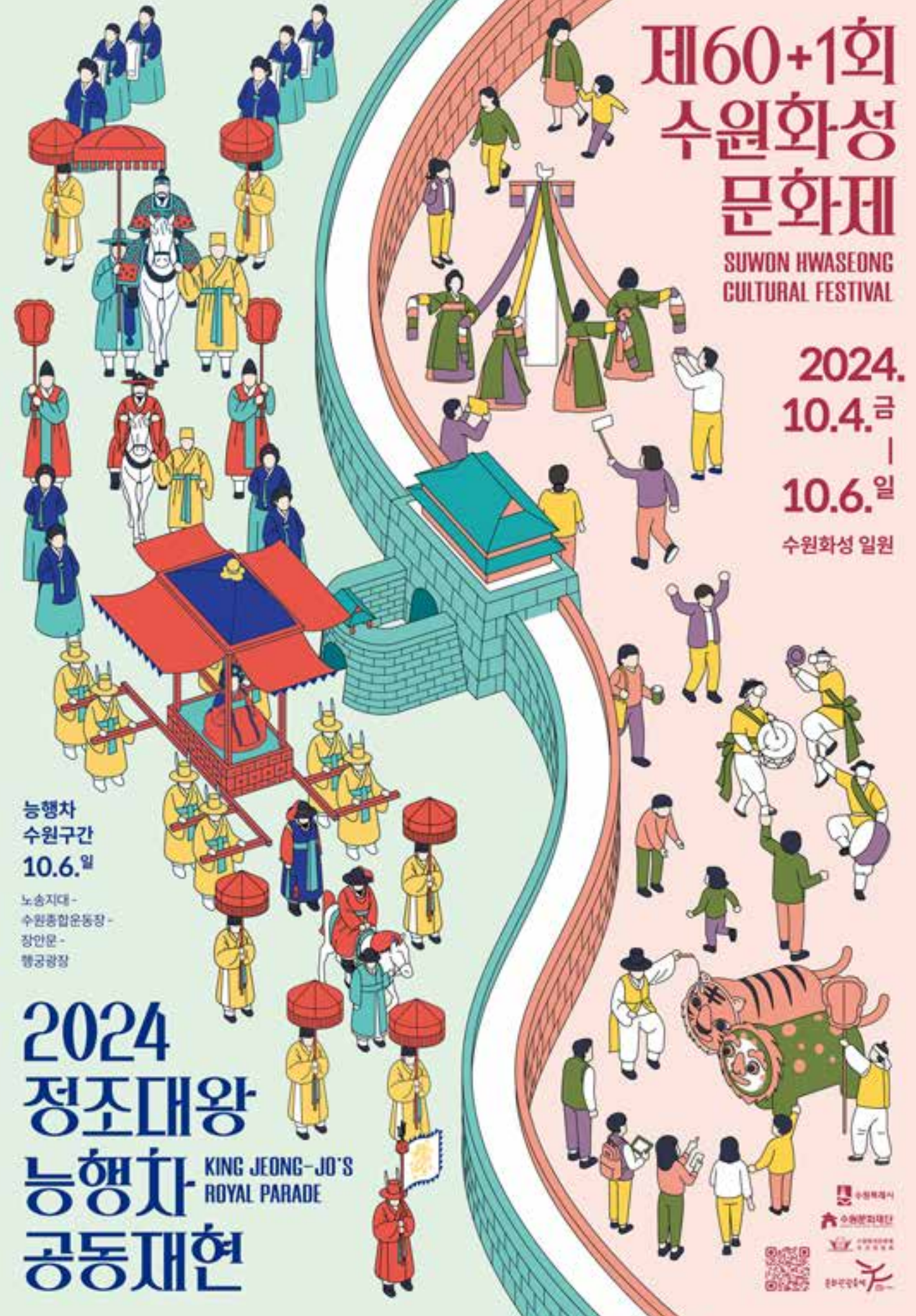
• EXHIBIT •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경주 09.10~12

한국 최대 규모의 국가유산 전시회로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전시는 국가유산 보존, 디지털 헤리티지 등 여섯 개 부문으로 나누어 300개에 달하는 부스를 마련한다. 무형유산 원데이 클래스, 국가유산 필드 트립, 헤리티지 미래 포럼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국가유산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장소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및 경주 일원 문의 054-702-1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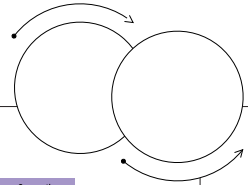


능행차 수원구간 10.6.일

노송지대 - 수원종합운동장 - 장안문 - 행궁광장

2024 정조대왕 KING JEONG-JO'S ROYAL PARADE 능행차 공동재현





what's up



• SHOW •

<코레오 커넥션 부산>

● 부산 ● 09.21

국립현대무용단이 지역 예술계와 상생을 꾀하는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을 기획했다. 첫 무대는 부산이다. 인간사를 탐구하는 김성용 예술감독의 작품 '정글', 부산에서 활동하는 박재현 안무가의 파격적 신작 '수선되는 밤'을 만날 기회다. 다음 공연은 세종에서 이어진다.

장소 부산시민회관
문의 051-630-5200



• FESTIVAL •

2024 남구 강변영화제

● 울산 ● 09.06~07

올가을, 태화강의 밤은 낮보다 흥미롭다. 스틸 넘치는 영화 <하이재킹>과 <노랑: 죽음의 바다>, 온 가족이 사랑할 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지구교향곡> <헬로카봇 올스타 스페셜>을 관람한 뒤 흥겨운 초청 공연과 불꽃을 감상하며 강변의 낭만을 누린다.

장소 울산 태화강 둔치
문의 052-226-5415



• FESTIVAL •

원주한지문화제

● 원주 ● 09.20~29

닥나무가 잘 자라는 원주는 한지의 고장이다. 1999년 출범한 원주한지문화제는 이 지역의 한지 제작 전통을 복원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결실이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원주 사람들이 손수 만든 등불로 구성된 '천 개의 빛'을 비롯, 풍성한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장소 강원도 원주한지테마파크, 강원감영
문의 033-734-4739



• SHOW •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 서울 ● 09.07~12.01

베케트의 부조리극이 배우이자 극작가 데이브 헨슨의 손을 거쳐 희극이 됐다.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 뒤편,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의 대역 배우 에스터와 벨은 예술과 인생을 논하는 주역으로 거듭난다. 이순재·곽동연이 에스터, 카이·최민호·박정복이 벨 역을 맡는다.

장소 서울 예스24스테이지
문의 02-6925-0419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9월 2일~10일)



• FESTIVAL •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 평창 ● 09.26~10.27

3년 단위로 강원도 시군에서 열리는 예술 축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2년부터 평창에서 진행된 '강원작가전2022'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3'에 이어 이번에 대미를 장식한다. 22개국, 77개 팀의 예술가가 '아래로부터의 생태 예술'을 주제로 독창적 세계를 펼친다.

장소 강원도 평창송어종합공원체험장 등 평창 일원
문의 033-240-1373

프로모션

꿈을 코딩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체험하기 →



직업기초능력평가 TEEN UP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직무 능력이다. 꿈을 정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이런 점이 궁금해요!

- Q 직업기초능력이란 무엇인가요?**
A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로, 조직이해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평생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 Q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직업계고등학교 1·2학년은 자기진단평가, 3학년은 본평가를 실시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마다 현재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별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직업기초능력평가 본평가 후 발급되는 인증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A 기업에서 고졸 채용 시 서류·필기·면접 전형에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개인별 인증서를 통해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재 자신의 직무 역량 수준을 가능하도록 돕는 평가로, 교육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다.
직업계고등학교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를 아우르며, 신산업·신기술을 포함한 다채로운 직업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다.

직업기초능력평가센터 대표 전화번호 1833-6543

2024 APP WORLD TOUR BUSAN SUP OPEN

SUP 프로 & 아마추어 페스티벌

SUP (Stand Up Paddle board) 스포츠 공식 프로 월드 챔피언십인 APP WORLD TOUR는 2022년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하여 매년 개최하는 국제대회입니다.

APP WORLD TOUR는 IOC의 서핑 스포츠 연맹인 ISA (International Surfing Association)로부터 SUP 스포츠의 프로페셔널 월드 챔피언십 투어로 공식 승인된 단체입니다.

The famous APP WORLD TOUR is back again in Korea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with the 2024 BUSAN SUP OPEN! Organized by the KAPP(Korean Association of Paddlesurf Professionals) and the Suyeong-gu district, this major SUP festival will be taking place on October 4th-6th on the vibrant beach of Gwangalli and will offer various races and activities for everyone, regardless of experience. Come and join us to watch the world top SUP athletes become champions!

높은 명성의 APP WORLD TOUR가 2024 BUSAN SUP OPEN으로 3년 연속 한국에 돌아옵니다! KAPP(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와 수영구청이 주관하는 이 주요 SUP 축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활기찬 광안리 해변에서 열리며, 실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레이스와 체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에 오셔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세계 최고의 SUP 선수들의 여정을 함께 하세요!



BUSAN SUP OPEN은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승리를 위한 전세계 프로선수들의 열정적인 레이스와 다양한 아마추어 레이스 및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SUP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를 부산 광안리에서 경험하세요!



수영구 광안리 SUPrise 해변

VISIT KOREA YEAR 2023-2024

VISIT KOREA YEAR 2023-2024

APP | KAPP

2024 APP WORLD TOUR BUSAN SUP OPEN

SUP 프로 & 아마추어 페스티벌

2024.10.04-06

부산 수영구 광안리 SUPrise 해변



주최 APP KAPP

주관 KAPP

*수영구 Suyeong-Gu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국립현대무용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김성용 예술감독과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반갑습니다. 현재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해 주세요. '코레오 커넥션'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를 발굴하고, 오늘날 사회와 사람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4개 극장(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세종예술의전당)과 협력해 안무를 공모하고, 해당 지역 선정작을 연습하는 등 제작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편중된 공연 예술 창작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 관객이 현대무용을 향유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대구·경북권에 박수열, 부산·경남권에 박재현, 세종·충청권에 정진아, 광주·전라권에 최재희 안무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각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박수열의 <몸>은 초월적인 힘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탐구합니다. 강렬하고 그로테스크한 움직임들 통해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합니다. 박재현의 <수선되는 밤>은 길을 잃은 한 가족이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소품과 무용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정진아의 <아니요, 네>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반항하는 인간>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부조리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움직임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희의 <켜켜>인데, 이 작품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자 합니다. 몸에 저장된 기억을 새롭게 해석해 표현하는 다채로운 몸짓에 주목해 보세요.

예술감독 안무작 <정글>과 어린이 무용 <얹! 얹! 얹!>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글>은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곳을 그려 냅니다. 무대 위 무용수가 표현하는 몸짓은 고군분투하는 각자의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밝닝콜·인정주 안무가의 <얹! 얹! 얹!>은 성공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입니다.

현대무용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즐기는 법을 알려 주신다면요.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용수가 전달하는 움직임,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음악을 들듯이, 그림을 보듯이 자유롭게 감상해 주세요.

국립현대무용단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름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현대무용 단체가 바로 국립현대무용단입니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모두와 함께 춤추는 현대무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현대무용의 중심이 유럽과 북미였다면 이제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립현대무용단에 많은 관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용 예술감독 2023년 5월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돼 <정글>과 <인인>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현재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오 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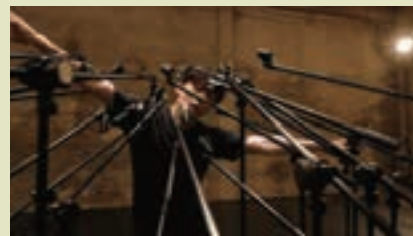
<몸> 안무 박수열



<수선되는 밤> 안무 박재현



<아니요, 네> 안무 정진아



<켜켜> 안무 최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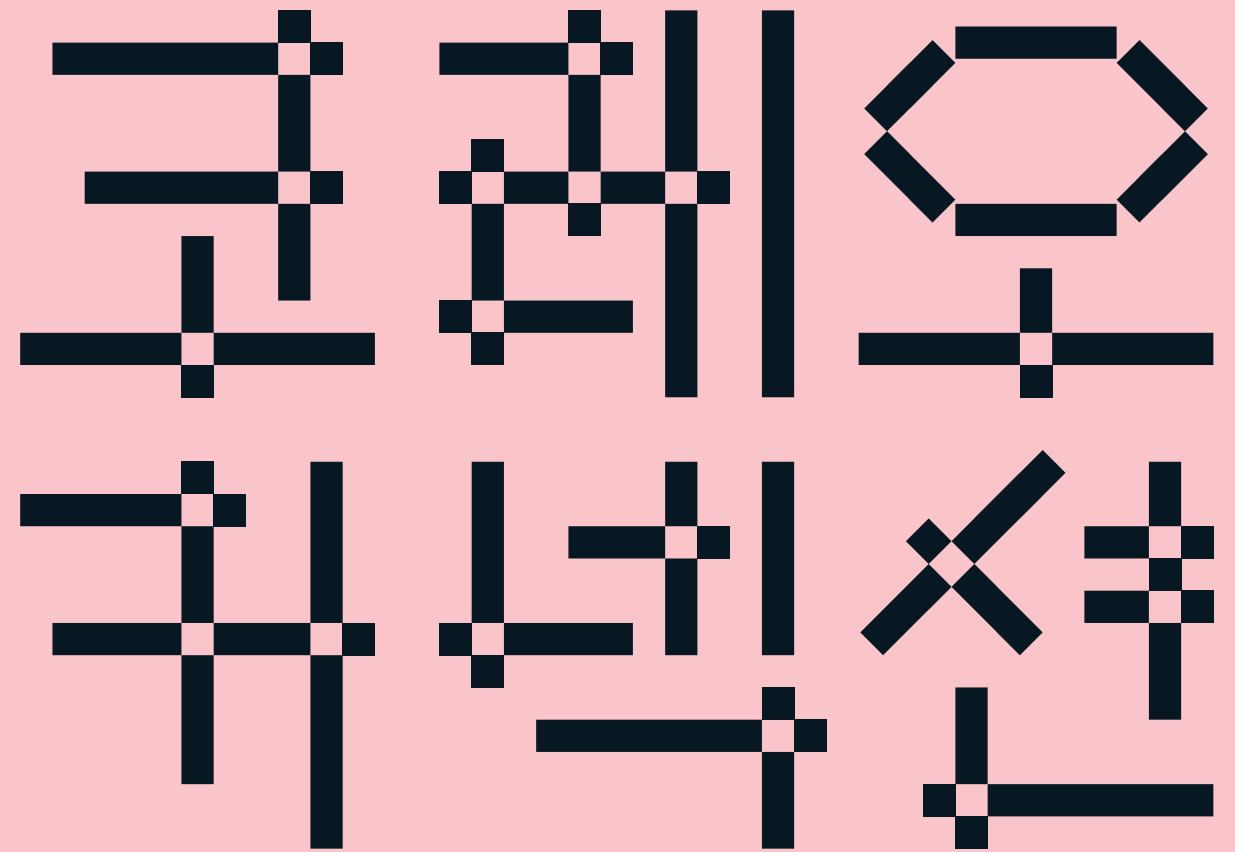
<정글> 안무 김성용



<얹! 얹! 얹!> 안무 밝닝콜·인정주

문의 02-3472-1420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Choreo-Connection



몸 안무 박수열	수선되는 밤 안무 박재현	아니요, 네 안무 정진아
켜켜 안무 최재희	정글 안무 김성용 예술감독	얹! 얹! 얹! 안무 밝닝콜·인정주 <small>어린이 무용</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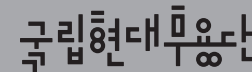
2024.9.21토 - 11.1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세종예술의전당



프로모션

Recommended Night Views

in Mokpo for Foreigners



Mokpo Marine Cable Car

Admire Mokpo's cityscape, mountains, sea, and islands from above with the Mokpo Marine Cable Car. Spanning a total length of 3.23 kilometers and taking about 40 minutes for a round trip, the cable car operates three stations: North Port, Yudalsan Mountain, and Gohado Island. At Gohado Island, a special experience awaits as you walk on a deck set directly above the water. The night views of the city and Mokpo Bridge from both the island and the cable car will leave you with unforgettable memories.

☎ 240, Haeyangdaehak-ro, Mokpo-si, Jeollanam-do

Mokpo Dancing Sea Fountain & Marine W Show

A spectacular fountain show takes place over the Mokpo sea, with water jets reaching up to 75 meters high along a 150-meter-long base. Every night, except Mondays, the fountain performs a captivating show with lively music and colorful lights at scheduled times. From 8 to 9 PM on September 14, in celebration of the Chuseok holiday, you can enjoy a special K-pop dance musical called the Marine W Show. This show, accompanied by a stunning fireworks display, will light up the night sky over Mokpo.

☎ 115, Mihang-ro, Mokpo-si, Jeollanam-do



Daebandong White Sand Beach & Mokpo Skywalk

Daebandong White Sand Beach, although modest in size at just around 300 meters, exudes a charming atmosphere. The beach, set against the backdrop of Gohado Island and the Mokpo Bridge stretching across the sea, offers breathtaking views not only during the day but also after sunset. The sight of the Mokpo Marine Cable Car cabins gently floating across the sky adds to the romance, making it impossible to put your camera down. The 54-meter-long Mokpo Skywalk provides an exhilarating experience amidst the beauty.

☎ 59, Haeyangdaehak-ro, Mokpo-si, Jeollanam-do



Romantic Port MOK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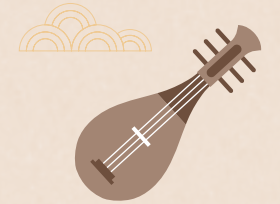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 KOREAN CULTURE & TOURISM FESTIVAL

목포항구축제

2024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

2024.10.11.(금)~13.(일) 목포항 & 삼학도 일원

프로모션



고성에서 축제 한마당, 수성문화제

9월, 강원도 고성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축제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서쪽은 백두대간, 동쪽은 바다와 맞닿은 강원도 고성의 옛 이름은 수성이다. 고구려 때부터 조선 시대 초기까지 불렀던 고성의 옛 이름을 딴 향토 문화 축제,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올해 42번째 개최된다. 고장의 전통, 예술을 집약한 축제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된다. 수성제단에서 봉행하는 수성제례로 막을 열고, 제례가 끝난 후 곧바로 군악대, 사물놀이팀 등 고성 군민이 어우러지는 가장행렬이 시가를 행진하며 흥을 한껏 끌어올린다. 수성문화제의 특징은 고성 역사는 물론 문화와 예술까지 모두 담았다는 점이다. 수성제례와 전통 혼례 시연, 시조 경창 대회로 전통을 계승하는가 하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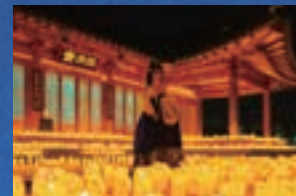
전야제로 군민이 제출한 서예·한국화·서양화 등 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관내 동아리 단체 경연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꾸린 부대 행사 청소년 페스티벌이 이어지니 군민은 물론 여행자에게도 열띤 축제 분위기에 녹아든다. 전야제가 열리는 22일부터 민속놀이, 염색, 도자기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제 기간 동안 체험 부스 여섯 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도 증정한다. 지역 축제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고성으로 떠나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고성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수성문화제가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다. 문의 033-681-2922



강릉의 은은한 밤을 즐기는 방법

어둠이 와도 여행은 계속된다. 강릉의 밤을 특별하게 꾸밀 행사를 소개한다.

고즈넉한 한옥에 밤이 내린다. 마당에 놓인 캔들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고, 감성을 촉촉이 적시는 가락이 귓가를 맴돈다. 여행자는 오죽한옥마을에 모여 국악 콘서트가 선사하는 색다른 추억을 만든다. 8월,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고 10월 앙코르 공연을 진행하는 <캔들라이트 in 강릉>은 달빛이 내린 오죽한옥마을에서 국악 앙상블 콘서트를 만끽하도록 한 무료 공연이다. 캔들 수백 개가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내 강릉에서의 밤이 더욱 특별하다. 그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 관광 특화 도시 강릉이 밤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할 프로그램을 여럿 마련했다. 바다를 곁에 둔 연곡솔향기캠핑장에서는 강릉 커피



를 음미하고 명상하는 프로그램 '강릉 밤바다 영감소'를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데도 7월 신청자만 200명 이상 몰렸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참여자는 해변에 설치한 투명 돔 텐트 안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빛나는 별 아래에서 싱잉볼 명상으로 내면에 집중한다. 경포생태저류지는 포토 존 명소인 메타세쿼이아길을 새롭게 단장했다. 가족과 연인을 위한 이벤트 조명, RGB 투광 조명 등을 활용해 밤에도 다양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별한 가을 여행을 원한다면, 밤에도 반짝이는 강릉이 답이다. 문의 033-640-5618



한가위처럼 기분 좋은 선물, 파나소닉 안마의자

소중한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유려한 제품군을 소개한다.
풍성한 혜택을 마련한 파나소닉 안마의자 스페셜 워크도 만나 본다.



신기술 집약체, 궁극의 휴식과 이완을 원한다면

★★★★★
MAF1 온몸을 이완하는 온열 마사지 볼,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고르는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했다. 최대 3명의 사용자가 세 부위를 조합해 설정한 후 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다.



오랜 세월 사랑받은 스테디셀러를 신뢰하는 편이라면

★★★★★
MA32 고급 제품의 기술력을 적용한 동시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춘 MA32는 시뮬레이션 로봇 제어 기술과 연계해 인체 공학적 안마 기술을 자랑한다. 몸 형태를 자동 감지하고 맞춤형 마사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효율적인 휴식을 선사한다.



실용성 좋은 제품을 찾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
MAC9 32가지에 달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특히 발등을 고정시킨 채 에어백으로 발 전체를 지압하는 과정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정확히 짚어 내고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
MA22 파스텔 톤의 베이지, 그린 컬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분을 온화하게 한다. 감성적인 색감과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디자인 덕에 실내 공간을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
MA05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너비 68센티미터, 높이 117센티미터, 무게 43킬로그램의 경량형 안마의자다. 콤팩트한 사이즈의 안마의자를 찾는다면 이만큼 믿음직스러운 선택지도 없다.

🔍 파나소닉 안마의자 스페셜 워크

▶ **혜택 1** 쓰던 안마의자를 바꿀 기회다. 타사 안마의자 포함, 사용 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 파나소닉 새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 REAL PRO MAN1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할인 기간 9월 30일까지

▶ **혜택 2** REAL PRO MAN1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초경량 무선 청소기 WDD91을 증정한다. * 재고 소진 시까지

파나소닉 기술력의 최종 진화형을 경험하고 싶다면

★★★★★
REAL PRO MAN1 목에서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마사지 구동 영역을 확장한 SJ 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3D 입체 마사지 볼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신체 곳곳을 골고루 주무르며 긴장을 풀어 준다.

전문의가의 섬세하고 노련한 손놀림이 필요하다면

★★★★★
REAL PRO MAK1 마사지 전문가의 지압 패턴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한 하이엔드 안마의자. 지압, 스트레칭, 문지르기, 주무르기 등 방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사지 코스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도 선보인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2024. 8. 12 ~ 2024. 9. 30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REAL PRO MAN1



1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타사 안마의자를 포함하여 사용 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
MAN1 최대 100만원,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가로 구매가능



2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초경량 무선청소기
WDD91 증정
* 재고 소진 시까지





고래와 만나는 땅, 울산 남구

아득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고래와 함께 살아가는 울산 남구 장생포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취재 협조 울산 남구청

www.korall.com
한국해양공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부’ 하는 뱃고동 소리가 울리는 항구를 바라본 채 섰다. 장생포항을 오가는 선박은 다양하다. 자재를 나르는 작은 배부터 먼바다로 나가려는 큰 것까지 물살을 가르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킨다.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여름 끝자락,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울산 남구의 장생포. 고래와 사람, 바다가 줄곧 교감해 온 공간이다.

고래와 이어진 삶,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선 시대, 선조들은 동해를 경해라고도 불렀다. 한자 경(鯨)은 고래를 의미한다. 고래 바다라 이름 붙였다는 것은 바다에서 고래를 보는 일이 흔했다는 뜻. 울산, 특히 장생포 사람들은 그보다 아득한 옛날에도 고래와 삶을 공유해 왔다. 신석기시대 유물로 추정하는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 그림이 존재하니, 동해를 경해라 기록하던 때보다 몇 곱절은 과거인 시점부터

함께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다. 19세기 후반, 포경업이 성행하던 시기에 유럽 등 타국에서 온 포경선이 조선 바다 근처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한다. 당시 조선은 포경선, 포경포 관련 기술이 없었기에 직접 바다로 나서기 어려워 바라보아야만 하는 처지였다. 러시아의 태평양포경회사가 장생포에 고래해체장을 설치한 1899년, 포경 기술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온다. 그러나 5년이 지나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패배한 후 일본이 포경업을 독점한다. 장생포 주민들은 광복을 맞고 나서야 포경산업의 주도권을 쥘다. 1986년 상업적 포경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장생포에서 고래잡이는 일상이자 삶 자체였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울산은 아득한 옛날부터 고래와 삶을 공유해 왔다. 특히 장생포 사람에게 고래는 벗만큼 가까운 존재다.



웨일즈판타지움



겹겹이 쌓인 시간의 일부를 들여다보려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로 걸음을 옮긴다. 10만 2705제곱미터(약 3만 1068평) 규모로 고래조각정원, 고래광장, 장생포 옛마을 등을 조성해 2015년 문을 열었다. 마을 동편 입구에 들어서자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입간판과 색 바랜 기와집이 보인다. 1960~1970년대, 포경 산업이 호황이던 장생포의 모습을 재현한 장생포옛마을이다. 서점, 양과자점, 다방, 전당포가 늘어선 골목이 정겹다. 지폐를 문 개 동상이 길보통이에서 시선을 끈다.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라는 풍문이 돌 정도로 부흥했던 장생포를 표현한 것이란 실핏 웃음이 나온다. 포수와 선장이 쓰던 물건, 작업복, 제복 등을 전시하고 장생포에서 활약했던 포수, 선장의 사진을 걸어 놓은 주택도 살핀다. 역대 포수의 사진을 보며 그들이 배 위에서 바다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한다. 운이 좋다면 실제 포수였던 해설사와 만날 수 있다. 과거 장생포를 이끌었던 주역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귀중한 시간이겠다.

장생포초등학교, 고래해체장, 고래막집 등을 둘러보고 마을에서 빠져나온다. 장생포 모노레일이 머리 위를 지나가자 시간 여행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온 느낌이 든다. 걸음을 재촉해 언덕을 올라가다 실물 크기의 고래 조각을 전시한 고래조각공원에서 속도가 느려진다. 향유고래, 범고래, 흑등고래... 여러 고래가 눈길을 끌지만, 장생포 하면 역시 귀신고래다. 울산 앞바다는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였다. 암초 사이에서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해 붙은 이름인데, 귀신이라는 섬뜩한 표현과는 달리 바다 밑바닥에 사는 저서 갑각류를 먹이로 삼는다. “귀신고래는 몸을 눕혀 해저를 휘저으면서 침전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울산 남구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2024년 9월 7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장생포 아트스케이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 먹이를 먹는다고 해요. 이때 몸에 따개비가 붙어 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조각에도 따개비가 있네요.” 최승희 문화관광해설사가 귀신고래 조형물 앞에서 설명을 붙인다. 이동하는 동안 길가나 도로에서 지나쳤던 고래 조형물 표면이 오돌토돌했던 이유다. 장생포 사람들에게 고래는 이웃 주민, 혹은 벗만큼 가까운 존재일 테니 작은 조형물에 이런 세심함과 애정을 쏟는 건 어찌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고래를 향한 울산 남구의 진심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웨일즈판타지움에서도 느껴진다. 울산 바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감상한 뒤 전시관의 하이라이트 <고래의 도시>를 상영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둥글게 흰 벽면 전체에 태화강, 장생포항이 나타나고 환상의 고래가 그곳을 유명한다. 관람자와 교감하듯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 때는 탄성이 나온다. 영상 속 고

래의 잔상이 남아 쉬이 자리를 뜨지 못한다. 유연한 지느러미의 움직임과 모든 일을 안다는 듯 그윽한 눈.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듯했다.

장생포와 고래, 그리고 예술

“새끼 고래 수백 마리 펄쩍 뛰고 춤추면/ 다칠까 돌고래 휩싸서 들고/ 파도는 해안 따라 뺨 둘러 에워싸고”. ‘장생포 타령’은 시인 노영수가 자신이 나고 자란 장생포를 그린 시다. 분주하고 활기찬 항구의 모습, 바닷사람들의 일상, 고래의 존재까지 더해지니 영감이 차오르지 않을 수 없다. 문화 자원이 풍부한 장생포의 특징을 활용해 생겨난 곳이 있다. 울산 남구 문

장생포를 다룬 예술 작품을 만난다.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은 장생포 아트스케이, 창작스튜디오 131, 새미골 문화마당과 장생포문화창고를 운영한다. 각 공간에서 여는 전시, 공연 등은 주민과 여행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활기찬 항구의 모습, 바닷사람들의 일상, 고래의 존재까지 더해지니 장생포에서는 영감이 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창작스튜디오 131

를 뺏어내는 공업단지를 관찰하다 커다란 구조물에 새긴 고래 그림을 발견한다.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 버린 고래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방식인 걸까. 이제는 바다에 나가도 예전만큼 마주하기 어렵다. 고래들이 노닐던 공간에 배와 사람, 건축물이 들어섰으니 당연한 결과다. 감정이 오묘해지는 찰나였다.

“장생포는 일반적인 포구와는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고래잡이 때문이지요.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선 후 고래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생포 주민의 삶도 잠시 나아갈 길을 잃었어요. 기술 발전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여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겠지요. 이제는 고래 문화를 가닥으로 잡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울산문화예술창작촌 한승태 팀장이 창작스튜디오 131로 길을 안내한다. 유희 공간이던 장생포 동사무소는 옛 신진여인숙처럼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화예술창작촌은 장생포 아트스테이, 창작스튜디오 131, 새미골 문화마당 총 세 군데 거점을 마련하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문학 분야 예술 레지던시 장생포 아트스테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크고 작은 배가 정박한 장생포항을 따라가다 골목으로 파고들자 넓은 마당을 가진 건물 하나가 보인다. 페인트를 덧칠한 외벽, 건물 구조 등이 세월의 흔적을 품었다. 이곳은 본래 1970년대 뱃사람들이 주로 머무르던 신진여인숙 건물이었다. 단칸방과 2층 구조 등 아늑한 여관 원형을 고스란히 살려 2018년 문학 레지던시이자 장생포 주민이 오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옥상은 분위기가 달라진다.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장생포항이 선명하다. 골목에서 뭇게구름 같은 연기

장생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각예술 레지던시 창작스튜디오 131은 정기적으로 입주 작가 전시를 연다. 전시실 옆에는 새미골 문화마당에서 커피를 배운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문의 052-276-0131





울산함



**울산함 부함장 좌석에 앉아
장생포항과 고래바다여행선을
한눈에 조망한다.**

시각예술 레지던시로 거듭났다. 내부 작은 전시실에는 회화, 탁본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장생포를 표현한 작품이 걸렸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장생포에 고래가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찾아보려 해요.” 한승태 팀장이 말을 덧붙인다. 최근 울산문화예술창작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9월에 열리는 울산고래축제 준비다. 장생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술가와 협업해 그린 그림을 증강현실·AI 기술을 활용하여 장생옛길 등에서 마주하도록 할 예정이다라니, 그들이 바라본 장생포와 고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분명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일 테다.

바다의 수호자, 울산함

다시 발걸음을 고래문화마을 쪽으로 돌린다. 고래와 그 문화를 지키려는 장생포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수

호하는 데 일생을 보낸 울산함에 가기 위해서다.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뒤쪽, 거대한 배 한 척이 우뚝하다. 높이 약 28미터, 길이 102미터를 자랑하는 배에 압도된다. 선미에 달린 닻이 사람만 하니,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 웅장함을 가늠하겠다. 한국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은 1980년 출정한 이후 2014년 12월 퇴역할 때까지 해양을 누비며 34년간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했다. 설계와 건조 등 선박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로지 한국 기술로 이뤄 내 의미가 깊다.

지하 1층 하갑판으로 입장해 조타실이 위치한 4층 최상갑판까지 자유롭게 관람한다. 해군 병사들이 머물며 실제 임무를 수행했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새삼스

고래생태체험관 바로 옆, 한국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으로 들어가 내부를 구석구석 살핀다. 체험 비용을 지불하면 해군복 대여가 가능해 색다른 기분으로 관람을 한다. 문의 052-256-6301





선암호수공원

레 다가온다. 여행자가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은 4층 최상갑판, 배의 심장과 같은 조타실일 것이다. 함장을 비롯한 주요 인원이 함선을 지휘하는 장소인 만큼 각종 기계장치, 레이더 등이 고스란하다. 내부 장치에 익숙해질 즈음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정면의 울산석유화학단지, 측면의 조선소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마침 출항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을 목격한다. 울산함 부함장 좌석에 앉아 장생포항과 여행선을 한눈에 조망하는 경험을 놓치지 않고 음미한다. 문득 포경선이 드나들던 50년 전 장생포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친다. 넓은 공업단지에서 열기가 아른거리고, 고래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선이 오가는 현재의 장생포항. 다시 50년이 흐른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막연히 상상하는 순간이었다.

변함없이 빛날 장생포에서

어느새 하늘이 노란빛으로 물든다. 선암호수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누엿누엿했다. 호수에 놓은 데크길을 산책하는 사람과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가 교차하는 모습이 평화롭다. 물 밖으로 머리를 빼고 입을 뻐끔거리는 거북을 지나 우거진 나무가 만든 그늘 속을 걷는다. 계절의 경계라 그런지 매미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이를 배경음악 삼아 남구 순환 산책로인 솔마루길에 오른다. 15분쯤 지나자 신선산 정상 부근의 신선정에 다다른다. 해는 금세 모습을 감추어 사위가 어둑하지만, 도시가 발하는 빛으로 주변이 환하다. 시내 반대편은 공업단지의 불빛이 일렁인다. 이때쯤 저 멀리서 '캉' 하고 금속 부딪치는 소리도 들려온다.

울산 남구의 밤은 이토록 낮만큼 활기차고, 삶의 열기로 뜨겁다. 50년 후의 장생포 모습도 이러하겠다. 시간이 흘러 모습이 바뀔지언정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장생포 사람들은 부단히 바다와 교류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삶에 고래가 함께한다는 사실도 여전하다. 18



선암호수공원은 선암댐을 중심으로 조성한 생태 공원이다. 호수 둘레에 약 4킬로미터에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공원에서 노을을 본 후 신선정에 올라 도심 야경을 감상한다. 문의 052-226-4853



Ulsan’s Nam-gu, Where Whales Meet the Land

I listened closely to the stories of Jangsaengpo in Ulsan’s Nam-gu, where whales and people continue to coexist.

Standing by the harbor, I heard the sound of a ship’s horn echoed across the water. Jangsaengpo Harbor bustles with a variety of vessels, from small boats carrying materials to large ships heading out to the open sea, churning up white waves in their wake. With the heat of late summer lingering in the air, I boarded the KTX train bound for Ulsan. My destination was Jangsaengpo in Ulsan’s Nam-gu, a place where the ocean, whales, and people have long shared a deep connection.

Deeply Bonded With Whales

Our ancestors once referred to the East Sea as “Gyeonghae,” which translates to “whale sea,” suggesting that whale sightings were a common occurrence. The people of Ulsan,

particularly in Jangsaengpo, have shared their lives with whales since time immemorial. The Bangudae Petroglyphs,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Neolithic era, feature carvings of whales, indicating that the bond between humans and whales stretches back far beyond even the recorded history of calling the East Sea by its ancient name.

In the late 19th century, whaling ships from Europe and other foreign nations began hunting whales in our seas. At that time, Joseon lacked the technology for whaling ships and harpoons, making it difficult for locals to participate directly in whaling activities. Around 1899, the Russian Pacific Whaling Company established a whaling station in Jangsaengpo. Five years later, after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Russia’s defeat, Japan monopolized



the whaling industry. It wasn’t until after Korea’s liberation that the residents of Jangsaengpo regained control over the whaling industry. Until commercial whaling was completely banned in 1986, whaling in Jangsaengpo was a way of life.

To get a glimpse of this layered history, I made my way to Whale Culture Village. As I entered the eastern entrance of the village, I am greeted by a signboard with a distinct retro feel and faded traditional Korean houses. This is Jangsaengpo Old Village, a recreation of the bustling whaling community from the 1960s and 70s, when whaling was thriving. The alleys, lined with a bookstore, a Western-style bakery, a teahouse, and a pawnshop, evoke a sense of nostalgia. I explored houses that display items used by whalers and captains, such as tools, work clothes, and uniforms, alongside photos of these figures who once played a crucial role in Jangsaengpo. If you’re lucky, you might even meet a real former whaler who now serves as a guide here, offering a rare opportunity to hear firsthand accounts from someone who was once at the forefront of Jangsaengpo’s whaling industry.

Jangsaengpo, Whales, and Art

The bustling, lively harbor, the daily lives of seafaring people, and the presence of whales naturally stir the imagination. Drawing on the rich cultural resources of Jangsaengpo, a unique initiative has taken root. The Ulsan Nam-gu Cultural Arts Village supports artists by providing three main hubs: Jangsaengpo Art Stay, Creative Studio 131, and the Saemigol Cultural Yard.

I decided to start by exploring Jangsaengpo Art Stay, a literary arts residency. Following the Jangsaengpo Harbor, where ships of various sizes are docked, I ventured deeper into a narrow alley and came upon a building with a spacious



yard. The exterior, with its layers of paint and aged structure, held traces of time. This building was once the Shinjin Inn, a popular lodging for sailors in the 1970s. Its cozy, single-room layout and two-story structure have been faithfully preserved, and in 2018, it was reborn as a literary residency and a cultural space where the residents of Jangsaengpo can gather. Creative Studio 131, which was originally the Jangsaengpo District Office, has been remodeled and now serves as a visual arts residency. In its small exhibition hall, various artistic interpretations of Jangsaengpo are on display, including paintings and rubbings. The current focus is on preparations for the Ulsan Whale Festival, scheduled for September. Students from Jangsaengpo Elementary School have collaborated with artists to create paintings, which will be presented in the village using augmented reality and AI technology. I’m curious to see how these students have envisioned Jangsaengpo and the whales—no doubt, it will be a fresh and unique perspective unlike anything seen before. Before I knew it, the sky had turned a golden hue. By the time I arrived at Seonam Lake Park, the sun was setting. The sight of people strolling along the boardwalk and ducks swimming peacefully in the lake created a tranquil scene. It felt like a transition between seasons, with the sounds of cicadas and crickets blending together. With this natural symphony as my background music, I began walking along the Solmaru Trail, a circular path around the lake. After about 15 minutes, I reached the area near the summit. Although the sun had disappeared, the urban lights have illuminated the area. Ulsan’s Nam-gu at night is as lively as the day. Even as time passes and appearances change, the people of Jangsaengpo will continue their tireless interaction with the sea. The whales will remain an enduring part of that life, just as they always have. 📍



울산 남구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태화강 동굴피아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푸른 풍경으로 울산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이자 은어, 수달, 고니 등 다양한 동물의 보금자리다. 탁 트인 강과 시원한 녹음도 좋지만, 태화강 국가정원만 보고 돌아섰다면 태화강을 모두 즐겼다고 할 수 없다. 태화강 동굴피아는 일제강점기에 조성한 인공 동굴을 손보고 꾸며 탄생한 공간이다. 십리대숲 사이를 나는 반딧불이, 장생포에서 노니는 고래 등을 주제로 미디어아트가 이어지고, 반딧불이는 고래 조명을 설치해 화려하다. 내부에 곤충체험전시관, 동굴카페 등도 마련했다.
문의 052-226-0077



장생포문화창고 쓰임을 다하고 20년간 방치된 냉동 창고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6층으로 구성된 건물에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갤러리, 공연장, 공유 작업실, 푸드 코트, 북 카페, 옥상 정원이 들어섰다. 특히 음료를 마시며 책 읽기 좋은 6층 지관서가에서 바라보는 장생포항 풍경은 장관이다. 항구에 정박한 배와 공업단지가 선명하데, 노을 질 때 항구가 붉게 물드는 장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하다. 옥상 정원 별빛 마당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포토 존을 마련해, 어둠이 내린 후 빛나는 장생포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좋다. 문의 052-226-0010

먹거리



고래뽕디샌드 고소한 향기가 풍기는 샌드 위에 짭짤한 고래가미소 짓는다. '고래뽕디샌드'는 땅콩과 버터를 첨가해 풍미를 끌어올린 디저트로, 유자·치즈·초콜릿 세 가지 맛의 수제 필링이 들었다. 너무 달지 않아 고래 모양 얼음을 넣은 커피와 잘 어울린다. 수제 필링부터 귀여운 캐릭터 등 고래뽕디샌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박기진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울산 토박이 고래 '산이'를 주인공으로 장생포, 태화강 등 여행지 일러스트를 패키지에 담아 여행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문의 052-709-3003



옛날손짜장만두 특별한 날 먹던, 그 시절 자장면 맛이 반갑다. 군침이 절로 도는 구수한 냄새, 윤기 나는 소스가 감각을 자극한다. 손으로 열심히 치면 반죽을 기계에 넣어 면을 뽑은 다음 김정호·허수정 대표의 15년 노하우가 담긴 소스를 부으면 자장면 한 그릇 완성이다. 소스는 양배추, 양파, 단호박과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넣고 콩을 갈아 첨가해 은은한 단맛이 입맛을 당긴다. 부드럽고 오동통한 면이 젓가락질 속도를 높이는 데 한몫한다. 없으면 서운한 탕수육도 새콤달콤한 소스와 궁합이 그만이다.
문의 052-261-2232

아일로, 옷에 깃든 이로운 가치와 정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가 열 번째 가을을 맞았다. 깊어 가는 계절처럼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1

꽃무늬 셔츠형 블라우스(ANJB300)
붓으로 그린 듯한 꽃무늬가 시선을 끄는 셔츠형 블라우스다. 맞추름을 넣은 소매의 곡선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단추를 풀고 접어 입으면 한층 멋스러워 보인다. 여러 가지 하의와 잘 어울려 일상에서 소화하기 쉽고, 정장과 함께 스타일링해도 무난하다.

1



2

진흙실크 스트레이트 팬츠(ANCP100)
아일로의 시그너처 원단인 '진흙실크'로 만든 일자바지로, 허리 뒷부분을 밴딩 처리해 착용감이 편하다. 함께 입는 상의에 따라 포멀하게, 때로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다. 진흙실크 소재 본연의 멋과 오묘한 색감, 부드러운 질감이 우아한 실루엣을 한껏 살려 준다.

2



3

데일리 화이트 플랫 슈즈(ANCX800)
깨끗하고 화사한 흰색 단화는 어떤 옷에나 두루 매치하기 좋은 만능 아이템이다. 둥근 앞코에 장식한 봉제선, 고급스러운 꽃무늬 깔창 등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여느 단화에 비해 착화감이 부드러워 외출이 잦은 이 계절에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다.

3



아일로

누비, 니들 편직, 가먼트 워싱, 쪽염 등 수공예 기법과 진흙염, 한지사, 모시, 리넨, 삼베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고객과 지향점을 탐색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기차 타고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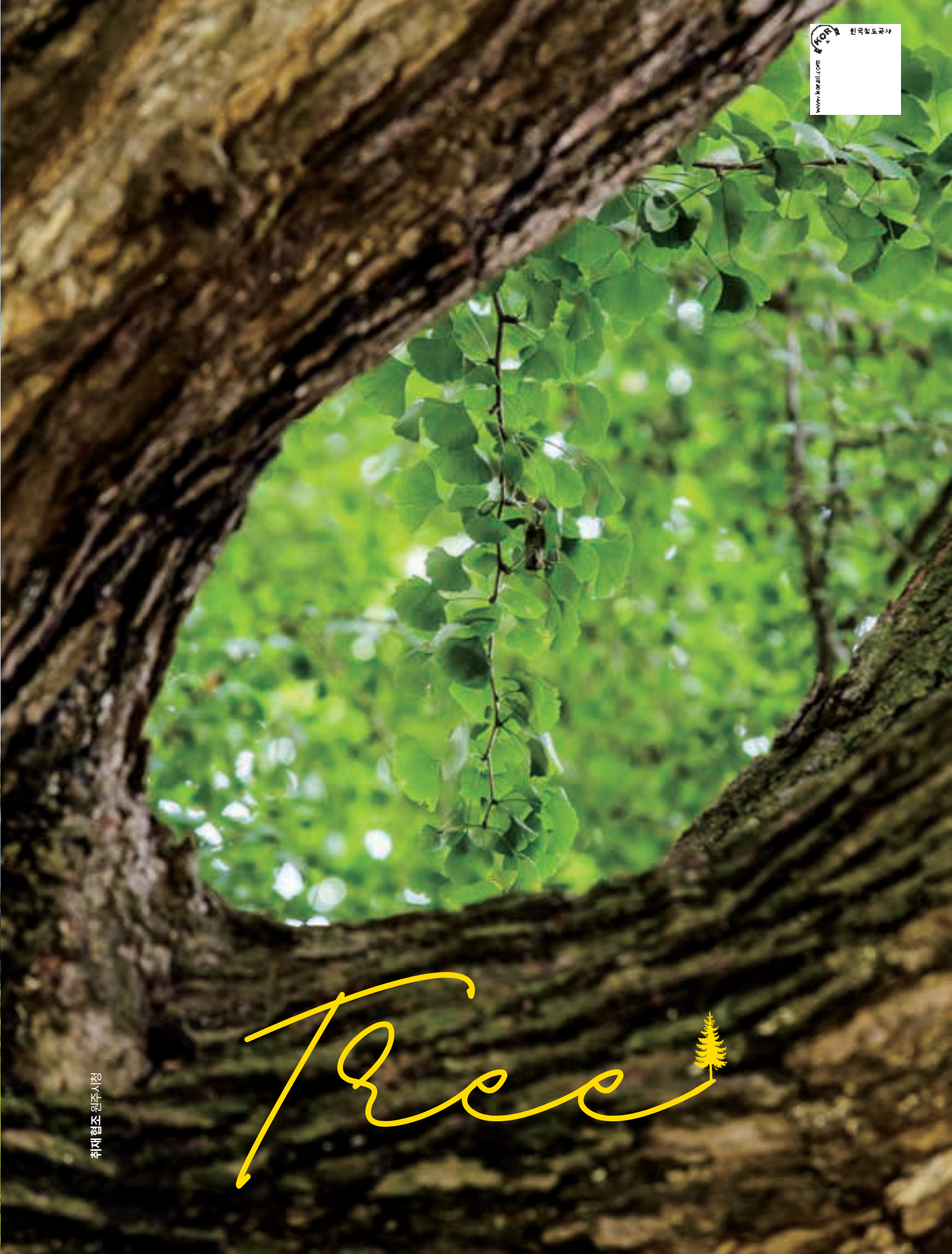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신규철



WONJU

원주 나무 기행

강원도 원주의 산천을 오래도록 굽어보았을 나무들, 그 신성한 존재를 마주하려 간다.



취재 협조 원주시청

Tree 



마른 가지에서 잎을 띄우고는 다시 헐벗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오랜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을 거듭하며 성장해 온 나무, 나무들. 믿음과 직관이 절대적 힘을 발휘하던 아득한 과거, 못사람에게 나무는 우주 질서의 표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지키던 신령한 나무를 '보호수'라 일컫는다. 역설적인 명칭이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종별 나이·키·둘레 기준을 충족하는 개체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이자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나무를 가리킨다. 어림잡아 수령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노거수라면 보호수일 확률이 높다. 희귀목이나 전설이 깃든 수목, 증식 가치가 충분한 수목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된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살아 있다

당산목으로 흔한 은행나무는 보호수 지정 기준이 월등한 수종이다. 수령 400년, 수고 20미터, 흉고직경 2.6미터를 넘어야 하는데, 은행나무가 워낙 질병에 강해 수령

원주의 눈부신 산천에는 잘생긴 나무가 많기도 많다. 크고 아름다운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원주시는 방문객과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광장으로 정비하고 있다.
문의 033-737-2808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서원주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원주역에도 정차한다.



이 긴 데다 줄기 또한 곧게 자라 풍채가 좋은 편이다. 분류학적 내력과 생물학적 특징 또한 고유하다. 고생대 페름기에 등장해 1문 1강 1목 1과 1속 1종을 이뤄 온 은행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위용을 자랑하며 지구의 역사를 굽어본 '살아 있는 화석'이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가면 은행나무, 아니 은행나무'님'이라 불러야 마땅한 존재가 자리해 '계신다'. 1964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높이 32미터에 둘레 16.27미터, 추정 수령 800~1000년에 달한 경이로운 생명체. 거대한 연체동물의 다리처럼 줄기와 뿌리가 위아래로 얽혀 기묘한 모습으로 자라났으니, 나무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숲이라 해도 무방해 보인다. 사방으로 뻗은 길고 묵직한 가지는 여러 개의 받침대에 얹혔으며, 넓게 드리운 그늘은 어딘가 영적인 기운에 휩싸인 채다. 군데 군데 커다란 옹이가 나무의 시간을 증거한다.

무수한 재난과 기상이변을 이겨 내고 맨몸으로 살아남은 이 나무는 11세기 무렵 출현해 21세기의 인류를 맞닥뜨린 셈이다. 이 사실이 도저히 실감 나지 않아서, 스



출렁다리와 올렁다리, 그리고 소금잔도에 올라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무성한 녹음을 감상한다. 정마철 휴장 이후 10월 27일까지 매주 주말 열리는 야간 조명쇼 '나오라쇼'도 함께 즐겨 본다. 문의 033-749-4860

관동 지역을 구경하고 쓴 가사 '관동별곡'은 섬강의 절경을 찬탄한 문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일 것이다. 간현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몸을 내맡겨야 한다. 울창한 숲이 이어진 등산로 턱을 올라 높이 100미터, 길이 200미터를 자랑하는 소금산 출렁다리에 다다른다. 걸음걸음마다 출렁이는 마음을 간신히 가는 채, 깎아지른 듯한 계곡과 시원스러운 하늘을 두 눈 가득 담는다. 열기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도 계곡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맑고 차가운 바람이 새로운 계절을 느끼게 한다.

소금산 정상부 벼랑에 설치한 360미터 길이의 소금잔도는 출렁다리만큼 큰 감동을 안긴다.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까워진 기암괴석이 얼마나 눈부시던지. 벼랑 끝에 매달린 소나무가 신기해서 한동안을 넋 놓고 감상하기도 했다. 돌 틈에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은, 고독한 무사 같은 소나무. 비바람과 눈보라를 버티고도 저토록 꽃꽂하다. 그래서일까. 옛 사람들은 사계절 푸른 소나무를 두고 절개와 신념을 논했고, 현대 한국인 또한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으며 여일한 애정을 표현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아름다운 외양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꼽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소나무만큼 인간의 삶 가까이 맞닿은 나무도 없다. 가로수나 방풍림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데에도 쓰이니,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소나무 아닌가. "작은 금강산'의 풍광이 참 대단하죠?" 문화관광해설사 양한모 선생의 말에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는 이곳에서 나무를 올려다볼 수도, 내려다볼 수도 있어 좋다고 했다. "서로 독려하듯 옹호하듯 자라난 소나무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새로 맺는 솔방울을 보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체감하기도 하지요." 그의 모든 말마디가 솔잎처럼 향기로웠다.

님의 지팡이가 뿌리내려 나무가 되었다는 신성한 전설을 믿어 보기로 했다. "줄기와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 보호 중인 전국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졌다." 울타리 안내판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긴다. 아무렴, '가장'이란 최상급 표현에 걸맞은 아름다움이다. 이 나무의 절정을 가을이라고들 하지만, 늦여름의 짙은 녹음이 뿔어내던 고요하고도 맹렬한 숨결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소금산 소나무의 꽃꽂함을 배우다

이제 섬강 물길을 따라 걸어 나갈 차례. 삼산천 계곡의 준봉이 펼쳐진 지정면 간현리는 마을 전체가 한 폭의 수묵화다. 앞서 이곳을 지나친 수많은 이들도 유려한 풍경을 칭송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 중기의 청백리 간옹 이희 선생이다. '더 나아가기를 그치고 머무른 고개'란 뜻에서 그칠 간(艮), 고개 현(峴) 자를 이름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강원감영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사이에서

소금산, 소금강, 금강석, 금강송.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은 최고를 뜻하는 '금강'에 있다. 누가 뭐래도 산 중의 산은 금강산. 금강산은 한국적 이상향의 극치다. 오죽하면 조선 시대 강원도 관찰사는 집무실인 강원감영 한편에 삼신산(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모티브로 후원을 꾸며 놓고 금강산의 영주를 자처하며 신선 놀음을 즐겼다 한다. 이 대목에서 금강산 소재지가 강원도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떠올려 본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의 구심점 원주에 강원감영이 들어섰다. 어엿했던 건물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모두 소실되었으나 지금껏 자리를 버티온 유일한 것, 바로 후원에 자리한 느티나무다. 1982년 보호수 지정 당시 수고 25미터, 둘레 6미터, 수령은 약 600년으로 기록됐다. 조선 왕조 500년을 지켜보고도 한 세기를 더 산 나무다.

나무 그늘 아래서 신선처럼 부채질을 하는 문화관광해

설사 박성남 선생에게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 청했다. “600년 넘는 세월을 건너 지금껏 묵묵히 생명을 유지해 왔으니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몇 해 전 나무를 치료하느라 가지 한쪽에 보철을 해 넣었는데, 속이 빈 탓인지 단풍이 빨리 드는 게 특징이랍니다. 여기 보세요. 끝에 달린 잎이 벌써 노랗게 변했죠.”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희한하게 생긴 옹이에 얽힌 세속적 미신에서부터 옛 정선군수 오형목이 쓴 <정선총쇄록>을 토대로 후원을 비롯한 감영 건물 전반을 복원했다는 흥미로운 역사까지, 잔가지처럼 뺄어나가는 그의 재담에 감탄을 연발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온화하게 흘러가는 늦여름 한낮이었다. 연못가의 버드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릴 때, 나이를 잊은 느티나무 어르신은 팽팽한 가지를 한껏 펼쳐 보였다. 팔랑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눈부신 빛이 스며들자 별안간 떠오른 단어, 별뉘. 작은 틈을 통해 비치는 햇빛을 가리키는 고유어다. 이 계절의 나무들이 만들어 준, 보석 같은 별뉘의 시간을 되새긴다. ㉠



원주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전통시장 만두 골목 원주 도심 한복판, 중앙동 전통시장 먹거리 골목에 가면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 온 만두 가게 여럿이 죽 늘어서 있다. 대표적인 곳 바로 도래미시장의 '예진네김치만두'. 1999년 영업을 시작해 20년 넘는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온 만두 명가로, 육수에 삶아 풍미를 살린 '건진만두', 칼국수와 만두를 합친 '갈만' 등 맛깔스럽고 개성 넘치는 메뉴를 선보인다. 원주 만두의 저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질 원주만두축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20만 명이 모인 지난해보다 한층 화려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문의 033-748-5289(예진네김치만두), 033-737-2943(원주만두축제)



중앙시장 소고기 골목 고깃집이 즐비한 중앙시장 1층 소고기 골목을 '석식 골목'이라고도 부른다. 숯불 화로에 석쇠를 올려 친환경 방식으로 사육한 치악산 한우를 구워 내기 때문. 치악산 한우는 보리를 첨가한 양질의 사료를 먹인 까닭에 지방 조직이 단단해 맛이 좋기로 유명인데, 이곳에선 아롱사태와 제비추리 등 특수 부위까지 합리적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터줏대감 격인 점포는 '일호집'이다. 이름처럼 골목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공간이라 현지 사람이 즐겨 찾는다. 치맛살, 업집살, 부챗살, 차돌박이로 구성된 모듬구이가 인기 메뉴. 갈빗살, 살치살, 안창살, 안심추리가 뒤를 잇는다. 문의 033-742-3258(일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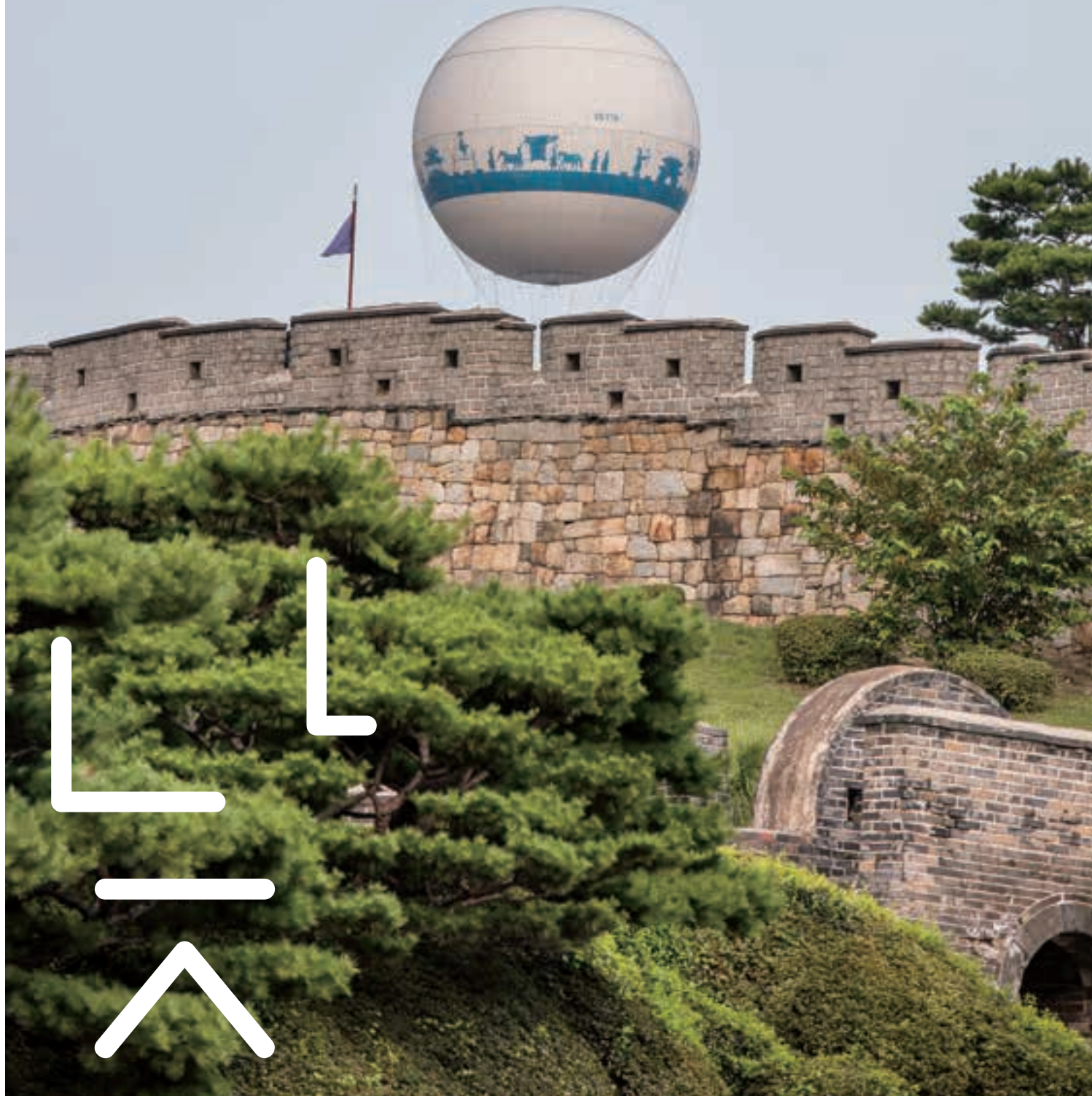


자유시장 분식 골목 떡볶이, 순대, 튀김, 돈가스, 칼국수 등 값싸고 맛 좋은 분식 메뉴가 모여든 자유시장 지하 1층. 화려한 분식 라인업에 갈피를 잃었다면, 우선 '뽕이떡볶이'로 향한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에 각종 튀김을 버무려 먹으니 학창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는다. 걸쭉하게 졸인 떡볶이 국물에 김밥과 순대를 적서 먹는 것도 별미. 1만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요즘, 이곳에선 떡볶이와 튀김 범벅 2인분에 김밥 한 줄까지 더해도 1만 원에서 500원이 모자란다. 마음껏 배를 불린 뒤 시원한 어묵 국물을 입가심을 하고 새로운 미식 여정을 떠나 보자. 문의 033-731-8082(뽕이떡볶이)



수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의 낮과 밤은 저마다 매력이 다르다. 낮에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를 거닐고, 밤에는 화성행궁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눈에 담는다.



수원



수원



취재 협조 수원시청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수원역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터치수원
편리한 수원 여행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수원화성의 역사와 관광지를 안내하는 오디오 가이드, 성향별 여행 코스 추천, 기타 편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한다.



수원 행궁동 곳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맛집을 방문하기 위한 줄인가 했더니 사진 촬영을 하려는 행렬이었다. 행궁동은 다양한 맛집과 카페 외에도 볼거리가 풍성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그해 우리는> <선재 업고 튀어>까지 화제의 드라마 곳곳에 행궁동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겼다. 종영하고 3개월이 흐른 지금도 많은 시청자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주요 장면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선재와 솔의 발자취를 따라서

먼저 선재와 솔이 살던 집으로 걸음을 옮긴다. 두 집은 두 사람처럼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파란 대문이 선재가 사는 집, 아치형 문이 솔의 집이다. 주인공의 집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이곳은 선재와 솔이 처음 만난 장소라 더욱 특별하다. 비가 내리던 날, 노란 우산을 씌워 주며 해맑게 미소 짓는 솔에게 선재는 한눈에 반했다. 두 사람의 서사가 시작된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다음은 선재가 솔에게 처음으로 좋아한다 말한 장소로 향한다. 6화에서 고백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선재는 수원천 다리 위에서 있었다. 선재의 떨리는 목소리, 당황하는 솔의 모습 너머 화홍문이 자리한다. 수원화성의 북수문인 화홍문에 설치한 수문 일곱 개는 실용적 기능을 위한 구조물이지만 무지개 모양으로 예쁘기도 하다. 그 앞에 서면 시원한 물줄기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른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다.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을 그 순간의 배경음을 듣는다. 화홍문 동쪽 언덕에는 방화수류정이 있다. 이 근처에서 선재가 솔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비틀거리를 반복하다가 균형을 잡았을 때 솔은 웃었고, 선재는 따라 웃으며 속도를 맞춰 달렸다. 그 뒤로 방화수류정의 모습이 화면에 비친다. 연못에 어른거리는 풍경

을 감상하는 것은 색다른 재미다. 연못을 둘러싼 길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도 좋다.

일대를 걷다 보면 여기가 왜 촬영지와 출사지로 사랑받는지 충분히 이해된다. 무성한 나무와 풀이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곳곳에 위치한 한옥이 고즈넉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져 둘에게 벌어지는 일이 환상 같기도,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과 대조돼 감정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시간을 넘나들어 서로를 찾아 낸 선재와 솔처럼, 누군가를 향한 애달픈 마음을 가진 이는 언제나 존재했다. 평생 그리움과 꿈을 간직하며 살아간 조선 임금이자 수원화성을 축성한 역사 속 인물, 정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방화수류정은 본래 수원화성의 각루 네 개 중 동북쪽 군사 지휘부인 동북각루를 일컫는 이름이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경치를 조망하는 정자 역할도 했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5화에서 솔이 자전거 타는 장면을 여기서 촬영했다. 문의 031-290-3600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

119년 만에 돌아온 화성행궁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 큰 상처로 남았으나 임금으로서 나라일을 계획하고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아버지의 무덤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는 수원 남쪽 화성으로 옮기고, 계획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수원화성 축조를 추진한다. 정조는 실학자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를 활용해 약 3년 만에 수원화성을 완공했다. 그 안에 지은 화성행궁은 행행 때 숙소로 삼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연 의미 있는 곳이다.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다가 1989년 복원 사업을 시작했고 대장정 끝에 지난 4월 매듭을 지었다. 화성유수부의 객사인 우화관과 음식을 준비하던 장소인 별주 복원까지 마쳐 119년 만에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레선지 야간 개장 소식이 유달리 반갑게 느껴진다. 10월 27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색다른 풍경을 즐긴다. 화성행궁에 얽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특별 야간 문화 관광

지난 4월, 우화관과 별주 복원을 완료하면서 35년 만에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개관식은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조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기념사와 우화관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의 031-228-4480(화성행궁 안내소)



밤
: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



해설 '빛 따라 고궁 산책'을 신청하면 된다. 화성행궁 정문, 신평루 가운데 문도 밤에는 활짝 열려 방문객을 반갑게 맞는다. 좀 더 걸어 도착한 우화관과 낙남헌의 경계를 이루는 행각에서는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대형 연꽃 구조물을 마주한다. 궁에 울려 퍼지는 국악 소리에 맞춰 연꽃도 춤추고 방문자의 마음도 일렁인다. 낙남헌에서는 미디어아트가 펼쳐진다. 이곳은 화성행궁에서 공식 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한 건물로,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희망찬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당에 설치한 달과 토끼 조형물로 모여든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더해지면 잔치에 초대받은 기분이 든다. 넉넉한 마음으로 온 백성을 품었던 정조가 생각나 팬스레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늘 높이 떠 있는 열기구 플라잉수원을 고개 들어 바라본다. 두둥실, 물 위나 공중으로 가볍게 떠오르거나 떠 있는 모양을 뜻하는 말. 그리고 다시 한번 두둥실, 마음에도 슬며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 크디큰 사랑과 그리움, 애뜻함 같은 감정이다.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 수원 곳곳을 온종일 누볐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곁을 지켜 주었다. ㉞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 곳곳이 축제 열기로 물든다. 을묘원행 중 수원에서 보낸 5일간의 기록을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건 물론 수원화성 축성과 도시 개혁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행궁광장 및 수원화성 일원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1796년 정조가 열었던 낙성연을 소재로 한 공연도 마련한다. 문의 031-228-3920



NAMHAE

다가가 가까이에서 보는 바다, 높은 지대에서 조망하는 바다, 제각각 생김이 다른 섬이 곳곳에 솟은 바다, 물이 들고 나며 형성한 너른 갯벌을 내놓는 바다. 남해는 진정 우리가 꿈꾸는 모든 바다를 가진 섬이다. 남해도와 창선도, 큰 섬 둘에 조도, 호도, 노도 세 유인도와 무인도 일흔여섯을 거느렸다. 고장 하나가 섬만으로, 아니 섬과 바다로 이루어졌다. 낭만적인 말이다.

섬은 그토록 아름답지만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만만치 않아, 주민에게 먹고사는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다. 남해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다량은 이 첫 번째 증거다. 산이 많은 섬은 임야가 68퍼센트에 이르고, 자연히 손바닥만 한 땅이라도 어떻게든 달래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 결과 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농지가 남해를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다. 바다를 향한 다량은 한눈에도, 오래 응시해도 절경이지만 여기서 일했을 이들을 떠올릴 때 감히 감탄사 한번 뱉고 돌아서기 미안해진다. 생계, 나와 가족 입을 건사하겠다는 의지, 태어났으니 오늘의 임무를 다한다는 덤덤한 절실함이 한 땀 한 땀 맺혔다.

전통 방식인 죽방렴 어업, 억센 바닷바람과 파도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해 조성한 방조어부림도 마찬가지다. 남해를 이어 걷는 256킬로미터 바래길의 이름 '바래'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고단하고 송고한 단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내려다보이는 해발 681미터 금산 절벽, 비경을 자랑하는 보리암은 지은 이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남해의 아름다움에는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지분이 함께한다.

사람 이야기가 폭 뱀 땅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기에 남해에서 촬영한 작품은 유독 진한 소회를 남긴다. 보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다음, 장면과 장면으로 점점 깊이 끌어들인다. 일하고, 사랑과 갈등을 하고, 잠시 내려놓은 채 휴식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으라. 남해를 담은 영상이 제안하는 대로 따라 가다 어느새 온몸에 섬과 바다가 차오른다. ㉸

Whether it's the sea you can view up close, the sea dotted with uniquely shaped islands, or the expansive tidal flats revealed by the ebb and flow of the water, Namhae has it all. This region is made up of two large islands, Namhaedo and Changseondo, along with many smaller islands. It's a place where land and sea are seamlessly intertwined—a romantic notion come to life.

But while the islands are breathtakingly beautiful, living there is no easy task. The terraced rice fields that come to mind when thinking of Namhae are the first testament to this struggle. With 68 percent of the land covered in forests, the residents had to make the most of every small patch of arable land. As a result, the steep, terraced fields carved into the hillsides have become one of Namhae's most iconic landscapes. These terraced fields offer a stunning view, but it's hard not to feel a sense of humility when considering the people who worked there. Their determination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is etched into the land.

Traditional fishing methods like bamboo weir fishing and the coastal protection forests that shield homes from the harsh sea tell similar stories. The 256-kilometer-long Barae-gil, a trail that winds through Namhae, takes its name from the laborious practice of gathering seafood from the tidal flats.

Because Namhae are so deeply intertwined with human stories, works filmed here evoke particularly profound emotions. As you follow the paths suggested by these films and dramas, you'll find yourself fully immersed in Namhae. ㉸

일하고 사랑하고 휴식하라, 남해

바다와 섬, 산과 마을과 길. 고장 전체가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찬 경남 남해는 화면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난다.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ENTERTAINMENT

<언니네 산지 직송> #미조항



비처럼 쏟아지는 멸치를 쪄서 얹아 한없이 쓸어 담는다. 일을 해야 식재료를 얻는 상황, 출연진은 난생처음 멸치 작업을 하는 참이다. 바다에서 왔다고 알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만 구입해 본 멸치를 손으로 만지고 다음 날 그것으로 조리해 먹으니 아주 꿀맛이다. 소박하고도 활기찬 어촌 풍경이 산지 직송한 맛을 더한다.

Hunched over, the cast members tirelessly scoop up anchovies. After only buying anchovies at the market, handling them by hand and cooking with them the next day makes the meal taste exceptionally delicious. The simple fishing village scenery adds to the charm.



<헤어질 결심> #아난티 남해

남편 살해 혐의에서 벗어난 서래가 두 번째 남편과 머무르던 바닷가 집은 호화롭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도무지 행복해지지 않는 서래.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용의자로 형사인 해준을 다시 만난다. 삶도 사랑도 바다처럼 먹먹하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니까?” 이 대사가 리조트 앞바다에서 나왔다.

Seo-rae, having been acquitted of her husband's murder, stays in a luxurious seaside house with her second husband. After her second husband dies, she meets Detective Hae-jun again as a suspect. The lines “Am I such a pushover?” and “Am I so wicked?” were filmed by the sea in front of the re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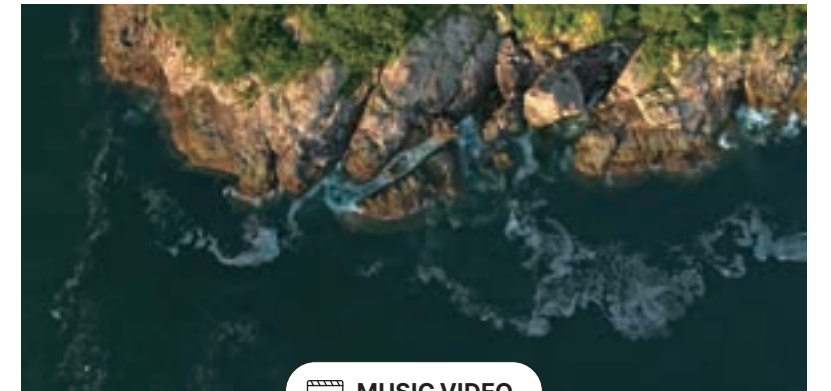


MOVIE

<잠적: 도경수> #최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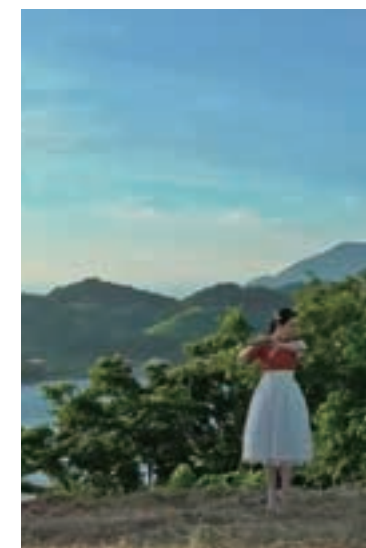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단어 '잠적'. 스무 살에 데뷔해 앞만 보고 달리다 서른을 맞은 가수 겸 배우 도경수는 그 소원이 더욱 간절했을 것 같다. 제대로 쉬는 방법조차 배운 적이 없었던 그가 남해를 찾아 몸과 마음을 내려놓았다. 최섬에서 오랫동안 같은 풍경을 보고, 물비늘이 금빛으로 반짝인다고 웃는다. 함께 휴식하는 느낌이다.

The word “disappearance” is something everyone dreams of at least once. Debuting at the age of twenty and working nonstop until turning thirty, singer and actor Doh Kyung-soo likely felt this wish even more strongly. After a busy schedule, he finally finds solace on Soeseom Island.



MUSIC VIDEO

<내가 너의> <넬라 판타지아> #남해바래길



256킬로미터 바래길 가운데 4코스 고사리밭 길은 구릉에 형성된 고사리밭과 마을, 바다가 어우러진 인기 구간이다. 다랭이마을과 몽돌 해변을 지나는 11코스 다랭이지겟길도 많은 이가 걷는다. 길 곳곳을 배경으로 대금 연주가 대금이누나가 음악을 들려준다. 애달픈 듯 힘 있는 대금 소리가 남해와 맞춤으로 녹아든다.

Course 4 of Barae-gil, known as the Gosari Field Trail, and Course 11, the Daraengi Jiget-gil Trail, are popular trails. Here, Daegumi Nuna plays the traditional Korean bamboo flute. Her poignant yet powerful notes blend perfectly with the landscape of Namhae.

가을 축제 유람

시원한 산들바람, 높고 푸른 하늘, 노랗게 물든 들녘. 새로운 계절과 자연을 무대로 펼쳐질 근사한 축제를 찾아 길을 나선다.



2024 하회선유줄불놀이; 하회야연 9월 28일, 10월 5일, 11월 2일

가을밤, 하회마을의 물줄기가 선유줄불놀이로 울긋불긋 빛난다. 부용대 정상과 만송정을 잇는 230미터 줄불이 상공에서 타오르는 장면은 극적이고도 짜릿하다. 선유줄불놀이는 조선 시대 양반이 향유하던 전통 유희로, 음력 7월 16일 밤마다 열렸다. '2024 하회선유줄불놀이; 하회야연'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선유줄불놀이를 재현하는 행사다. 9월 28일, 10월 5일, 11월 2일이 장관을 맞닥뜨릴 기회다. 경북도청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 안동 하회마을 일원 ☎ 054-852-3588**

2024 원주 댄싱카니발 10월 4일~6일

춤은 어떤 예술보다 강렬한 감흥을 일으킨다. 원주 댄싱카니발이 압도적 호응을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유다. 이번 축제의 중심축은 K팝이다. 국내외 최정상급 댄스팀이 친숙한 비트에 맞춰 선보이는 퍼포먼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경연은 크게 K팝 댄스와 프리 댄스, 그리고 숏폼 영상으로 대결하는 온라인 종목으로 이루어진다. 흥겨운 몸짓과 리듬에 무대와 관객, 도시가 한마음으로 연결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다. **☎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 ☎ 033-760-9882**



2024 목포항구축제 10월 11일~13일

목포의 전통, 파시의 명맥을 잇는 축제가 이 계절의 바다를 더욱 생기 넘치게 한다. 파시 전통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해상 파시 퍼레이드, 어등 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가 늘어선 때문이다. 파시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즉석에서 맛보도록 오션 뷰 구이터를 마련했고, 목포 식재료를 주제로 미식 페스타도 진행한다. 1970~1980년대 선창 골목을 표현한 '추억의 선창거리', 잠수 산업 관련 직업을 체험하는 '청년항구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 ☎ 061-270-8431**

전주페스타 2024 10월 3일~26일

맛과 멋, 열정을 담은 축제에 전주가 들썩인다. 비빔밥축제와 막걸리축제에서 전주의 맛을, 국제한지산업대전·전주독서대전에서 고유한 멋과 전통을, 전주페스타오프닝/클로징축제·조선팝페스티벌에서 흥과 열정을 만끽한다. 전북 최대 규모인 드론 2024대가 하늘을 수놓고, 전주의 모든 디저트를 만나는 달콤스토어가 펼쳐지며, 전통 가락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페스티벌이 분위기를 돋운다. K뮤지컬이라 할 창작 마당 창극 공연도 놓치면 아쉽다. **☎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 www.jeonjufesta.com**



2024 페스티벌 광명 9월 28일~29일

산책하기 좋은 도시 광명에서 계절과 자연, 음악을 두루 즐기는 축제를 만난다. 화려한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으며 6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탄한 라인업이 눈에 띈다. 국민 록 밴드 YB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고, '광명음악명예의전당' 어워즈에 초대 헌액된 산울림 리더 김창완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올해는 광명 출신 시인 기형도의 작품을 주제로 한 '기형도음악제'를 창설해 더욱 의미가 깊다. 마침 시를 노래하기 좋은 가을이다. **☎ 광명시민체육관과 잔디광장 ☎ 02-2680-5284**

+가을 축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KTX매거진>과 함께 꽃혀 있는 특별 부록을 펼쳐 가을 여행을 위한 정보를 얻어 보세요!



프로모션



한 입 가득 행복, 대구 행복한갈비

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 밥상에 둘러앉아 마음을 나눌 때다. 대구의 갈비 명가 행복한갈비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은 추억을 쌓는다.

추억은 힘이 세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손을 맞잡고 고깃집에 가는 날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굽는 아버지의 자상함, 달콤하고 고소한 갈비를 맛보는 즐거움, 가족과 주고받는 대화의 따스함...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감각이다. 좋은 음식이 주는 포만감, 소중한 이와 나눈 유대감이 추억을 깊게 아로새긴 것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 행복한갈비

미식 도시 대구의 갈비 명가 '행복한갈비'에서 새로운 추억을 덧대어 보면 어떨까. 2013년 영업을 시작해 현재 대구에 4개 지점을 거느린 이곳은 11년간 입소문만으로 큰 성장을 이룬 맛집이다. 임효섭 대표는 따스한 식탁이 선사하는 기쁨을 더 많은 이와 나누고 싶어 '행복'이란 단어를 상화에 넣고, 정성 어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 대표 가족의 추억과 전통이 깃든 특제 양념으로 버무린 한돈 정통수제갈비가 행복한갈비의 시그니처 메뉴다. 고급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기에 좋다. 이 외에도 명품 한우갈비살, 제주 생오겹살, 목살수제갈비와 점심 특선 등 메뉴를 다채롭게 구성해 고객의 취향을 두루 충족한다. 모든 메뉴는 본점과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 주방 본부에서 고기와 양념을 공급받아 조리한다. 행복한갈비가 추구하는 균일한 맛과 품질에 대한 고집이 느껴진다.

모든 지점이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갖췄음은 물론 단체석·놀이방 등 편의 시설과 채소·음료 셀프 바 등을 구비해 가족 모임을 갖기에도 더할 나위 없다. 온 가족이 모이는 9월, 행복한갈비에서 행복이 샘솟는 식사를 즐겨 볼 때다.

+ 행복한갈비

2013년 대구에서 영업을 시작해 대명점, 송현점, 수성점, 신암점을 열어 돼지갈비 명가 자리매김한 행복한갈비는 정성이 깃든 음식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원칙으로 삼는다. 문의 053-982-7777(지저본점)



홍콩 오션파크에서 잊지 못할 순간을

편안한 휴식과 흥미진진한 경험. 하루가 금세 지나가는 리조트 홍콩 오션파크에서 알찬 휴가를 보냈다.



여행을 계획할 때 항상 고민한다. 휴식에 집중할지, 체험에 초점을 맞출지 두 가지 욕구가 치열하게 맞선다. 그러던 중 마음이 이끌린 곳이 홍콩 오션파크다.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휴식하고 놀이기구와 물놀이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리조트라는 말에 호기심이 일었다.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로부터 5회 연속 인증을 받고, 홍콩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목적지 선정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홍콩 오션파크 메리어트 호텔을 나와 5분이면 오션파크 입구에 도착한다. 먼저 '어메이징 아시안 애니멀스'로 향했다. 아시아의 자연 서식지를 재현한 공간에서 자이언트 판

Hong Kong



+ 홍콩 오션파크 더 알아보기

홍콩 오션파크는 1977년 1월 비영리단체로 문을 연 후,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명소로 발전해 왔다. 홍콩 오션파크 메리어트 호텔, 워터월드 오션파크 홍콩, 더 풀러턴 오션파크 호텔 홍콩을 차례로 개장하며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복합 리조트로 발돋움했다. 현재 환경보호 교육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문의 www.oceanpark.com.hk

© 홍콩 오션파크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Ocean Park

다 잉잉과 레레, 레서 판다를 만났다. 홍콩 오션파크는 동물과 가까이에서 교감하는 시간이 환경 보존을 향한 의지를 공고히 한다고 믿는다. 그 마음을 떠올리며 소중한 존재들을 눈에 꼭꼭 담았다.

저탄소 유기농 메뉴를 선보이는 '턱시도 레스토랑', 홍콩 오션파크의 마스코트 캐릭터 모양 쿠키를 판매하는 '아쿠아 시티 베이커리', 고급 중식 다이닝 '넵튠스 레스토랑' 등 출출한 배를 채울 선택지는 여럿이다. 북적거리는 야외를 더 느끼고 싶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옛 홍콩처럼 꾸민 거리 '올드 홍콩'에 들렀다. 네온 불빛 아래서 홍콩 대표 간식 와플과 밀크티가 입에 착 감긴다.

마지막 코스를 기다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날 계획을 짠다. 오션파크는 바닥이 없는 롤러코스터 '헤어 레이저', 빠른 음악에 맞춰 앞뒤로 움직이는 '레브 부스터' 등 온몸의 세포를 깨울 스틸 넘치는 놀이기구가 다양하다. 워터월드도 못지않다. 소용돌이 모양의 개방형 실외 어트랙션을 타면 보트가 구멍으로 떨어지는 순간 신나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매트에 엎드려 누가 가장 빨리 내려가는지 시험하는 '레인보 러시'도 인기 만점이다. 하루는 전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더 풀러턴 오션파크 호텔 홍콩에 머무는 게 좋겠다고 동선을 그려 본다.

그때 알람이 울린다. 오후 7시 15분, 라이트 쇼가 펼쳐질 시각이다. 형형색색의 분수, 웅장한 음악, 아쿠아리움의 거대 정령이라는 '애니모' 캐릭터 홀로그램에 내레이션이 더해져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본 듯 마음이 충만해진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홍콩을 소개하는 내용의 공연이 차례로 펼쳐진다. 하루의 끝을 장식할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할 멋진 쇼였다. 홍콩에서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K**



Hong Kong • Ocea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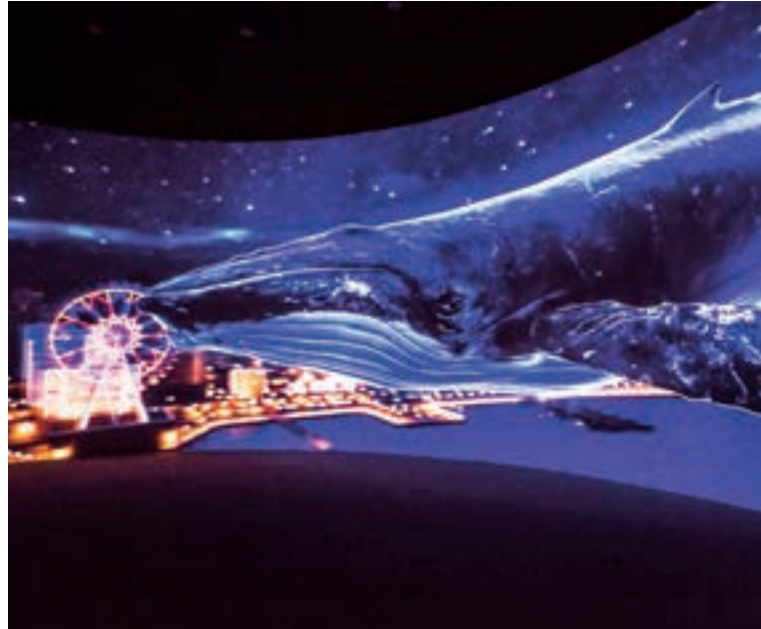
사계절이 축제, 울산 남구

고래 문화가 깃든 곳, 울산 남구가 다채로운 축제로 여행자를 맞는다. 서동욱 남구청장에게 여행 안내를 부탁했다.

Q. 울산 남구가 '행복 남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행과 문화가 있다고요. A. 최근 울산 남구의 문화, 관광과 관련해 기쁜 소식이 많았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여행지, 장생포를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에 특히 힘써 왔죠. 그 결과 지난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방문자 수 150만 명이라는 유의미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로, 남구가 울산 여행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올해 여름에는 '백만 송이 수국'이라는 테마 아래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남구는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장생포를 즐길 거리 넘치는 '1년 365일 축제 도시'로 만들고, 그에 걸맞은 볼거리·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체함' '체류'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어 코스타카트와 공중그네 같은 체험형 콘텐츠, 해군 관사를 활용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Q.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도 수상했죠. 여행자가 울산 남구의 매력을 배로 느낄 것 같습니다. A. 삼호공창이나 공업탑1967처럼 남구의 정체성을 담은 특화 거리를 방문한다면 분명 체감하실 겁니다. 울산 남구가 발전해 온 과정, 산업화 역사를 여행지에 자연스럽게 녹여 여행자의 이목을 끌고 상권도 살렸지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골목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기도 하니 이전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감돕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여겨봐주세요. 장생포에는 오색 수국과 라벤더 등을 심은 계절별 테마정원을, 태화강 하구 둔치에는 그라스정원과 황토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처음 여행하시는 분은 물론 이곳을 다시 찾는 분도 남구가 지닌 보석 같은 매력에 놀라게 될 거예요.

Q. 9월은 울산고래축제가 열리는 흥겨운 달이지요. A. 올해는 오랜 시간 고래와 함께한 장생포의 역사와 미디어를 융합했습니다. '장



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첫날, 개막 축하 불꽃 쇼가 막을 엽니다. 대형 LED 화면에는 깜찍한 남구 마스코트 장생이가 축제를 소개하고, 커다란 고래가 무대를 헤엄치는 모습을 구현해 탄성을 자아내지요. 이 외에도 뮤지컬 배우가 출연하는 갈라 쇼, 열기를 더해 줄 DJ 파티, 미디어아트를 연계한 퍼포먼스로 화려한 야간 퍼레이드까지 이어져 낮과 밤 모두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 자체 제작한 페스티벌 송,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 콘텐츠를 더해 의미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울산고래축제만의 다양하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기대해 주세요.

Q. 신정시장, 수암한우야시장 등 남구 전통시장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A.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곳을 찾는다면 신정시장을 추천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해 접근성은 말할 것 없고, 규모가 커 다양한 물건이 모입니다. 돼지 뼈와 고기를 오랫동안 정성껏 끓여 국물이 일품인 돼지국밥, 갓 반죽해 삶아 낸 면에 맑은 육수를 붓고 깨·시금치·김·양념장 등을 올린 손칼국수가 침을 고이게 하지요. 또 수암한우야시장은 울산 남구의 대표 야시장으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곳입니다. 고

PHOTO PICK
울산 여기서 한 컷

@ulsan_go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 투어와 불꽃 쇼 🌊🎆

12월 말까지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 투어 운영!

매주 금·토요일 야간 연안 투어를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시작하는 불꽃 쇼를 놓치지 마세요.

선상 EDM 파티는 9월 28일 개최합니다! 🎵

#울산남구 #행복남구 #장생포 #EDM파티 #고래바다여행선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급 한우 요리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 명성이 자자합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공연과 행사가 열려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요. 어느 가게를 방문해도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구매할 수 있으니 구이, 불고기, 육회 등 다양한 음식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Q. 다가오는 가을, 울산 남구를 방문하려는 여행자에게 코스를 귀뜸해 주세요. A. 도심 속 선암호수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선암담과 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울창한 나무 덕에 가을 정취가 느껴져요. 공원 안, 책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 자관서에서 통창 밖 풍경을 음미해도 좋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가 반겨 주는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울산 남구 단풍 명소인 문수구장마로니에길도 추천합니다. 그래도 9월 하면 역시 장생포입니다. 울산고래축제와 더불어 고래바다여행선을 타고 야간 연안 투어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합니다. 투어가 끝날 즈음 바다 위에서 불꽃 쇼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백미입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을 보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아름다운 볼거리는 눈에,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은 마음에 담아 생생한 울산 남구를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

Treasure of Korea



살아남은 자의 기도
- 보석사 감로도

감로도란 죽은 이의 영혼이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는 불교 의식을 치를 때 거는 그림이다. 그림에는 굶주리고 고통받는 아귀 모습의 영혼, 이들을 위해 음식을 차려 놓고 기도하는 승려와 가족, 영혼을 구제하러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부처와 보살이 나온다. 사람들은 이 그림처럼 부처와 보살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해 주기를 간절히 빌었을 것이다. 1649년에 그린 '보석사 감로도'는 충남 금산 보석사에 모셔졌다. 아래쪽에 말을 타고 조총을 든 일본군과 갑옷도 없이 활과 칼을 들고 맞서는 조선 군사가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였던 금산. 그림은 살아남은 사람의 상처에 새겨진 장면이나 다름없다. 전쟁과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고인의 평안을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차린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극락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애처롭다. 그림이 말한다. 자신이 당시의 기도로 평안해졌다고.

The Prayers of Survivors
- *Painting of the King of Sweet Dew Saving Hungry Spirits*

The genre known as "gamnodo," which literally means "sweet dew painting," is hung during Buddhist ceremonies that pray for the souls of the deceased to reach heaven. The *Painting of the King of Sweet Dew Saving Hungry Spirits*, created in 1649, was originally enshrined at Boseoksa Temple in Geumsan, Chungcheongnam-do. The lower part of the painting shows Korean soldiers without armor, armed with bows and swords, battling Japanese soldiers on horseback. This scene reflects the fierce battles that took place in Geumsa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he painting speaks to the survivors, assuring that their prayers have brought peace to their loved ones.

09
12

AM 10:00
~
PM 04:00

2024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초거대 AI :
흐름을 넘어 주류로 자리 잡다
Hyperscale AI opens up a better future :
Beyond the flow and become mainstream



일시
2024년 9월 12일(목)
AM10:00 ~ PM04:00

장소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산수동

시청
유튜브 '시사저널 e' 채널 생중계
(youtube.com/@sisajournal-e)

문의
AIF2024 사무국: 02-6716-4400
forum@sisajournal-e.com



<생각의 힘이 커지는 미로찾기>

보석을 찾는 탐험가, 말을 타고 시합하는 기사, 지구와 우주, 사람과 동물 등 흥미로운 주제로 만든 미로찾기 70편을 수록했다. 미로찾기 놀이뿐 아니라 숨은그림 찾기, 숫자 세기에 관한 질문 등 구성이 알차다. 밝고 생동감 있는 그림 덕에 놀이 시간이 더욱 신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Puzzle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 다음 표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하이픈만 찾아봐주세요.

* 정답이 116쪽에 있습니다.

Living sense INSIGHT.



왜 리빙센스일까?
34년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관찰하고 기록해 온 로컬 매거진으로
브랜드가 전하고픈 가치와 이야기를
남다른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what we do.

Brand Contents

- 단행본, 브로슈어, 출판물 제작
- 브랜드 콘텐츠기사영상 제작

Promotion

-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브랜드 팝업 행사 기획&운영

Viral Marketing

- 디지털&바이럴 광고 운영
- 인플루언서 협업



협업 문의
living-sense@living-sense.co.kr
010-5555-7055



<나를 향해 열린 문>

정갈한 문살무늬와 장지문에 어른거리는 불빛,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문을 열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소통과 경계의 상징으로서 문이라는 소재를 다각도로 탐구하는 작가 방복희가 지난봄 프랑스 부르그뉴에서 열린 초대전에 이어 신작 '열린 문'을 소개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한층 풍부해진 상상과 표현이 깊은 사유로 이끈다.
기간 8월 31일~9월 28일 문의 02-6104-0058(서울 갤러리단정)

Culture

<Beyond the Canvas>

단순한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기하추상회화가 던지는 질문. 회화의 평면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매체로 회화 연구를 해 온 작가가 이교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캔버스 너머의 공간을 응시하고자 한다. 성글게 직조한 천으로 공간감을 표현하고, 공간과 공간이 이루는 관계를 들여다본다. 피비갤러리는 이 전시와 더불어 이교준의 작업을 선별한 기획전 <Selected Works>를 북촌 한옥 '호호재'에서 연다.
기간 9월 28일까지 문의 02-6263-2004(서울 피비갤러리)



<조용한 여행>

신문사에서 2008년부터 여행 기자로 일한 저자는 여행이 직업이다. 그런 이가 첫 여행 에세이를 냈다. 실시간 중계 같은 기록이 아니라 속으로 곱씹고 묵힌 뒤 내놓은 글이다. 수많은 여행 가운데 고르고 골라 '수면제 없는 고요한 밤' '좋은 게 많기보다 나쁜 게 적음' 같은 6개 목차에 묶었다. '조용한 여행'이라는 여행의 태도와 취향을 발견한다. 최승표 지음 어떤책 펴냄



<여기는 루퐁이네: 천사들의 시골살이>

225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THE SOY 루퐁이네' 주인공, 2015년생 포메라니안 루디와 풍키 자매가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차분한 루디와 발랄한 풍키, 귀여운 '인싸' 도시 강아지의 우당탕탕 시골살이를 담았다. 재미있게 읽다가 반려동물의 소중함, 가족으로서 책임감도 자연스레 배운다. 루퐁이 지음 샌드박스네트워크 감수 박지영 구성 서울문화사 펴냄



<살바토레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다'는 예쁜 말이지만 식물을 길러본 사람은 안다. 단 며칠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애쓰고 기다려야 하는지. 작가 겸 정원사인 저자는 대관령의 고요함과 자연 풍경에 반해 30대에 귀촌한 뒤 강원도 평창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정원을 가꾸고 있다. 그가 겪은 매일매일의 행복한 고통을 책으로 엮었다. 계절별 사진도 세세하게 실었다. 윤민혁 지음 목수책방 펴냄



프로모션



사람과 자연을 품은 지리산둘레길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지리산둘레길에서 정겨운 풍경과 자연을 만난다.



사진제공 국립수목원(이승환)

노각나무
Korean mountain camellia

전 세계에 일곱 종이 분포한다. 겹겹질이 모과나무, 배롱나무처럼 벗어진다. 껍질이 떨어진 부분에 붉고 노란 빛을 띠는 얼룩무늬가 생겨 비단나무라고도 부른다.

해발 1915미터로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 그 둘레를 걷는 길에서 수려한 산림 경관과 마을 정취를 느낀다. 지리산 숲속을 누비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2012년 조성을 마치고 방문객을 맞은 둘레길은 전북 남원, 전남 구례를 거쳐 경남 함양·산청·하동까지 총 다섯 고장을 잇는다.

다채로운 풍경과 함께 걷는 길

9월 지리산둘레길에 도전한다면 전북 남원 인월면과 경남 함양 마천면을 연결하는 인월-금계 구간을 권한다. 둘레길 전체 개통에 앞서 시범 구간으로 운영했던 코스로, 총길이는 20.5킬로미터이며 완주에 8시간가량 소요된다. 울창한 숲은 기분, 길을 걷는 내내 황금빛 다랑은, 제방 등 다양한 농촌 풍경을 마주해 지루할 틈 없이 트레킹에 빠져든다. 출발 전 지리산둘레길 주천~운봉 코스의 시작점, 남원 주천안내센터 부근에 자리한 용궁 마을에 방문해 고즈넉한 돌담길을 걸어도 좋다. 10월 26일부터 28일에는 지리산둘레길에서 산림청 주최로 3일간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ATC)를 개최한다. 아시아 각 국가의 트레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들이 정보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이 기간 동안 지리산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근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해 페스티벌도 함께 여니, 지리산 자락의 맛과 문화를 즐길 기회다.

문의 www.trail.or.kr(지리산둘레길)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장손>

70년 가족사에 숨겨진 비밀로 현시대 가족의 의미를 짚는다. 3대가 모인 제삿날, 장손 성진은 가업인 두부 공장을 잊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일가의 명줄이 달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설상가상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맞닥뜨려 가족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로라미디어상 등 3관왕을 달성했다. 9월 개봉. 감독 오정민 출연 강승호, 우상현



<무도실무관>

열혈 청년 정도는 태권도, 검도, 유도 도합 9단의 무도 유단자다. 그는 우연히 전자 발찌를 찬 범죄자에게 공격받던 무도실무관을 구해 준다. 보호관찰관 선민은 이를 계기로 정도에게 5주간 무도실무관 업무를 맡을 것을 제안한다. 배우 김우빈이 통쾌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여 기대를 모은다. 9월 13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감독 김주환 출연 김우빈, 김성균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바닷가 마을에 사는 바다는 오늘도 글러브를 들고 고래바위에 오른다. 날은 저물어 가고, 친구들이 떠난 해변에 혼자 남지만 자리를 뜨지 않는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상상을 담은 연극으로, 누워서 연기하는 배우를 생생하게 보도록 무대에 스크린을 설치했다. 블랙 라이트를 비추면 색이 변하는 골판지 오브제가 재미를 더한다. 2024년 아시테지 서울 어린이연극제 대상을 수상했다. 기간 9월 26일~28일 장소 경기도 평택 한국소리터 문의 031-683-3891

<리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범죄를 다룬 록 뮤지컬이 돌아왔다. 1892년 여름, 부유하지만 구두쇠로 소문난 보든가의 앤드류·에비 부부가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사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둘째 딸 리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고, 그를 포함한 네 명의 여인이 법정에 선다. 배우 김소향, 김려원, 이봄소리가 리지 보든 역을 맡아 강렬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극을 이끈다. 기간 9월 14일~12월 1일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문의 02-3485-8700



<X-SPACE>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공연이 관객의 감각을 자극한다. 대전예술의전당과 카이스트가 협업해 제작한 공연실험실 콘텐츠로 80분간 네 개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피아니스트가 AI 피아노와 듀엣 무대를 선보이고,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해 무용수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표현한다. 공연 당일 로비에는 무대에 활용한 기술을 관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존을 마련한다. 날짜 9월 28일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문의 042-270-8333



SHOWS

©(주)쇼노트

ENTERTAINMENT

프로모션

한가위, 즐기세포로 젊음을 선물할 시간

부모님 추석 선물이 고민인 이들에게 청담셀의원의 프리주비네이션 프로그램을 권한다. 세월의 흐름이 눈에 띄게 느껴진다면, 고민은 짧을수록 좋다.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근육량을 지키는 데 있다. 항노화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에 따르면 근육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체력을 지탱한다. 기운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들은 대개 근육이 덜 발달했거나 타고난 근육량이 적은 편이라고 봐도 좋다. 더욱이 근섬유에는 젊음을 붙들어 두는 미토콘드리아가 가득하다. 이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근육을 강화하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도 촉진한다. 전문가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세포 노화와 연계된 쇠퇴 징후를 되돌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젊음을 지키고 노화를 대비하는 프리주비네이션

문제는 노화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 이에 조 원장은 건강하게 근육을 늘려 나가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를 더하라고 제안한다. 예컨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매끼 양질의 단백질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을 병행하면 화룡점정. “프리주비네이션은 노화 징후가 나타나기 전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를 통칭합니다.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인 셈이지요.” 조 원장의 말이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즐기세포 정맥주사다. 즐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지닌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역시 젊어져 체력도 증진할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청담셀의원은 즐기세포 효과에 주목해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즐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셀은 성체 즐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한다. 즐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평소 약하거나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도 회복할 수 있다. 노화 징후를 되돌리는 즐

기세포 프로그램은 이 외에도 다채롭다. 성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을 두루 경험해도 좋다. 조 원장은 내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두는 것 또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미래 의학은 이미 병이나 노화가 진행된 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나아가 징후가 나타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프리주비네이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 면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부모님의 추석 선물로 젊음과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을 추천하는 이유다.



+ 청담셀의원 | 조찬호 대표원장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 청담셀의원은 즐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골수·지방 즐기세포를 활용하는 극소수의 국내 의료 기관 중 하나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즐기세포치료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즐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학병원 브리검여성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으며, 현재는 대한즐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대전 원도심 걷기

대전 역사가 철도와 관련 있다는 사실부터 옛 충남도청사, 레트로 분위기 가득한 원동, 중앙로 불빛 축제 소식까지 한 번에 만나다니! <KTX매거진> 덕분에 당일치기 여행도 알차겠어요.

정유리 서울시 중구 청파로



꽃과 꿈이 피어날 때, 안동

여행을 다닐 땐 주로 KTX를 탑니다. <KTX매거진>은 최고의 여행 안내자이고요. 잡지를 읽는 동안 사진과 글에 항상 놀랍니다. 다음 달에는 안동에서 금강연화 체험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김미순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제게 섬은 부모님이 평생 농사 지으신 곳인데, '섬이 궁금한 그대에게' 기사를 읽으니 아름다운 여행지이기도 하더라고요. 휴가 때 섬에서 아이들,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 보냈습니다.
김신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10주년 스카프'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제품으로, 꽃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스카프입니다. 심플한 코디에 화사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남도 해양관광열차

S-트레인 로컬매력투어 남도의 가을



하동

순천

보성

A코스

쌍계사 / 찻잎마술
정금차밭
스타웨이하동
최참판댁 / 매암다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 선암사
조계산 트레킹
삼보사찰 송광사

울포해수욕장
붓재전망대
대한다원
득량역 문화정거장

B코스

삼성궁
회남재 트레킹
매암다원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백반정식

보향다원
보림제다
초루

S-트레인 주요역 탑승 시간

08:13 부산역 09:15 창원중앙역 09:59 진주역 10:53 순천역
17:38 득량역 19:16 진주역 20:00 창원중앙역 21:01 부산역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행
1박2일 코스 별도 문의

여행경비 55,000원 ~

왕복 S-트레인, 연계 차량, 식사 1회, 입장료 포함
여행자보험 및 체험비는 추가 선택사항

대표 전화 1899-2550

평일 10: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카카오채널문의 "기차여행센터"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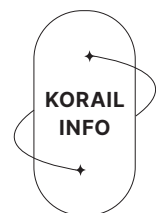
WWW.KORAIL.COM



- 104 코레일 소식
- 11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12 열차 이용 안내
- 114 비상시 행동 매뉴얼



© 하영복





한국철도공사, 여객 운송 약관 개정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했다. 단체 여행객은 이제 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열차 안에서 즉시 승차권 환불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역에서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한다. 약관 전문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X-마음, 13년 연속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



한국철도공사가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과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전문가와 환경 단체, 소비자가 함께 선정한다. 한국철도공사는 호남선 ITX-마음으로 녹색상품 서비스 부문에서 13년 연속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친환경성과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탄자니아철도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7월 25일 열린 탄자니아 표준궤 철도 개통 행사에 참석해 탄자니아철도공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영 및 유지 보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탄자니아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사업을 위해 행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ITX-새마을 열차 자유석 승객도 셀프 체크인



KTX 열차에서만 가능했던 자유석 셀프 체크인 서비스가 7월 31일부터 ITX-새마을 열차에서도 가능해졌다. 셀프 체크인은 자유석 승객이 좌석의 QR코드를 스캔해 스스로 검표하는 서비스다. 고객 수요를 반영해 기존 KTX 자유석 객차 한 칸에만 제공하던 QR코드를 KTX 17호차에도 추가로 부착해 운영한다.



열차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각 코레일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운행 중인 모든 여객열차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각을 7월 29일부터 코레일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열차의 GPS 정보와 선로의 신호기 통과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지도에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다음 역에 도착할 시각을 예측한다. 기존에는 5분 이상 늦어질 경우에만 지연 시간을 안내했으나, 이제는 5분 미만이라도 1분 단위로 알려 준다. 해당 서비스는 코레일톡 앱 초기 화면에서 '열차 위치' 또는 '나의 티켓' 메뉴를 눌러 확인한다.



여행을 가요



지역사랑 철도여행

자세한 사항은 우측상단의 QR코드로 확인해보세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가차 #렌터카 #숙박



열차 운임 50% 할인

자유여행상품

#QR인증 #할인 #혜택



- ✓ 열차 왕복 10% 우선 할인
- ✓ 이틀 열차 운임의 40% 상당 할인쿠폰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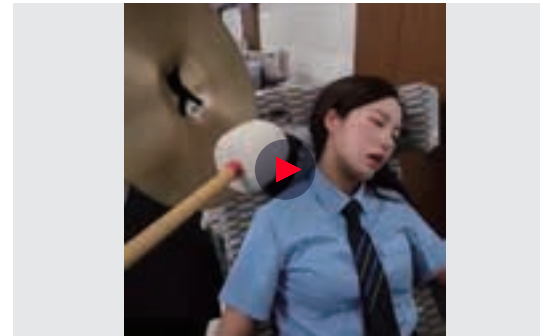
패키지여행상품

#지역명소 #단체관광



열차 운임 50% 할인

KORAIL SNS



#KTX #KTX산천 #좌석선택 #목베개

잠이 솔솔 오는 편안한 KTX-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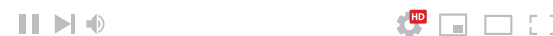
옆 사람이 불려도, 음악 소리가 들려도 깨지 않는 이유? KTX-산천 열차는 좌석이 폭신하고 높이 조절 가능한 목베개가 있어 편안합니다.



#한국철도공사 #기차여행 #KTX #할인

KTX 50퍼센트 할인

철도 운임 50퍼센트 할인, 주요 관광지 입장료 최대 50퍼센트 할인 등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전철 #지하철 #한국철도공사 #50주년

광역 전철 50주년

한국철도공사 광역 전철은 1974년 8월 15일 등장해 50년 동안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한국철도공사 #인터뷰 #교통전문기자 #비행기

KTX vs 비행기

철도계의 저명인사를 만나는 '철터뷰', 이번에는 강감생 교통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상 확인!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떠나는 문화 예술 여행, 광주비엔날레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함이 밀려오는 가을, 국제 예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9월 7일 개막해 86일 동안 광주 전역을 다채롭고 생생한 문화 예술로 물들인다. 세계적인 미술인론가이자 기획자인 니콜라 부리오가 예술감독을 맡았고,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전시 주제인 판소리는 소리와 공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동시대 공간을 탐구하는 작가들을 소개하며 판소리 본연의 정신을 재현하고자 한다. 국내외 미술·문화 기관 교류의 장으로 운영하는 파빌리온은 올해 31개로 확장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전시관은 세 섹션으로 나뉜다. 공간 부족으로 소란한 지구를 보여 주는 '부딪침 소리', 다양한 관점이 뒤섞인 세계의 복잡성에 주목한 '겹침 소리',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광대한 세계를 탐구하는 '처음 소리'다. 관객은 서사를 따라 전시를 감상하고, 더 큰 세상인 우주와 분자 세계를 탐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광주 곳곳에서 소리와 시각 요소를 혼합한 예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기간 9월 7일~12월 1일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일원

광주 열차 연계 상품



KTX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상품을 11월 30일까지 판매한다. 최대 40퍼센트 할인한 KTX 승차권, 사전 예매 가격과 동일하게 할인한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으로 구성해 풍성하게 광주 여행을 즐긴다. 예약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에서 가능하다.

상품 안내 2024 광주비엔날레 보러 가자!
KTX 왕복 승차권 +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당일, 1박 2일 중 택일)
* 8만 600원부터(용산역~광주송정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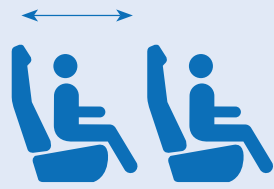
문의 062-942-3376(한국철도공사 광주송정역 여행센터)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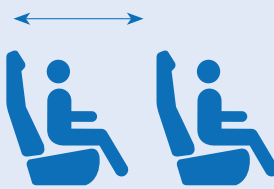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료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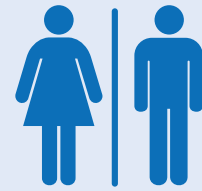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KTX-청룡 1, 4, 6, 8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KTX-청룡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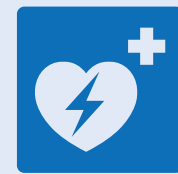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KTX-청룡 6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KTX-청룡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KTX-청룡 3, 5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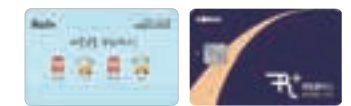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한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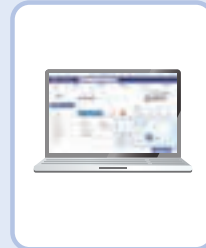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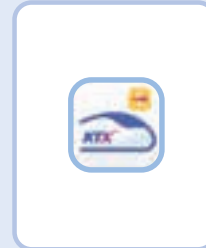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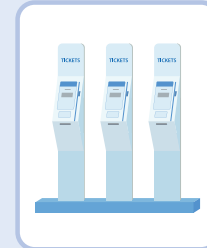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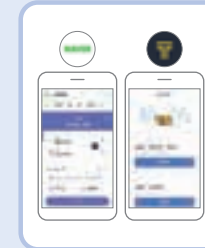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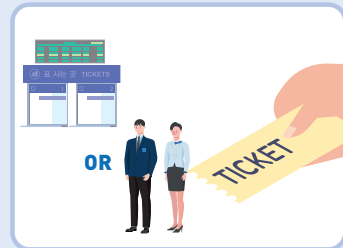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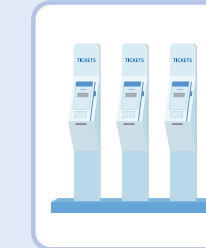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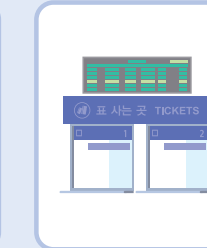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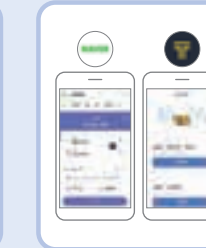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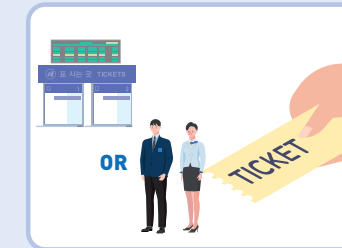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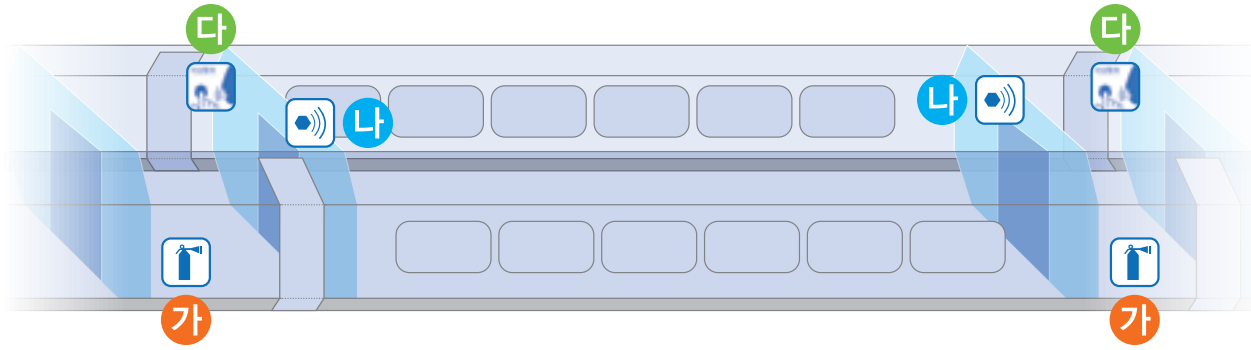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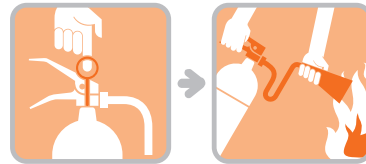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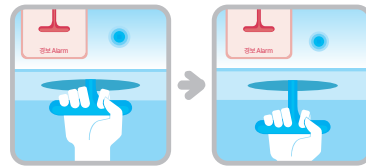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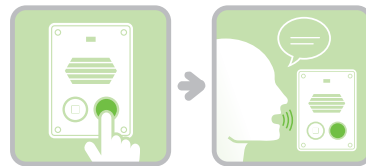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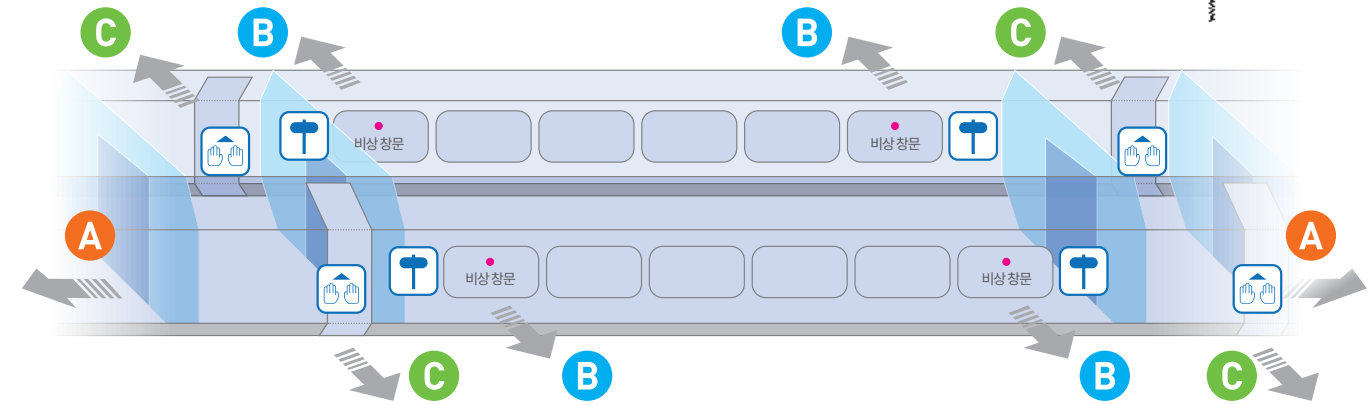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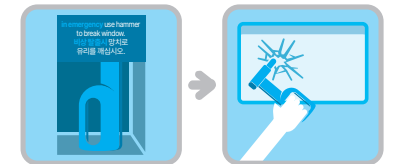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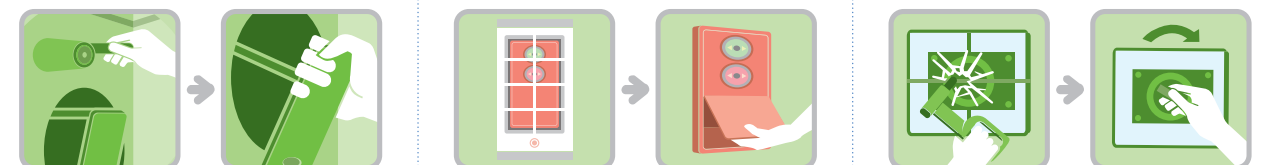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함께해요, 사투리

남쪽, 밤바다가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 대전으로 전학 갔다. 의자를 '오자'라 발음한다고 친구들이 웃어서(나쁜 의미 아니고 생소해서)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했다. 아따, 어찌라고. 그는 봉개 '그냐?'를 '그려/겨?'라 하던데... 너와 나의 사투리는 모두 정겨웠다. 서울에 살면서 표준어 구사자가 되었지만, 언제든 모드 전환이 가능한 원어민이라는 게 작은 자랑이다. 사투리를 웃음거리 삼거나 낮추어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유산으로서 관심 갖는 시대가 와서 기쁘다.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사투리는 못 참지!>전을 다녀왔다. 여러분, 진짜 재미있어요. 시청각 자료 때문에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린 왕자> 경상도 버전 <애린 왕자>, 전라도 <에린 왕자>, 제주도 <두린 왕자>는 꼭 펼쳐 보세요. "중요한 기는 눈에 비치지 않는다카이." 김현정

영화의 영화를 찾아서

당초 4페이지로 기획한 '여행하는 영화, 영화로운 여행'을 지면 사정상 1페이지로 대폭 축소했다. 예전부터 '영화 제목으로 완성한 지도'라는 아이템을 묵혀 왔는데, 여기에 마침 새로 개봉한 영화 이야기를 더할 수 있어 금상첨화라 생각했다. 아쉽긴 해도 좋은 영화를 이렇게나마 언급한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문경>은 시사회에서, <진주의 진주>는 개봉관에서,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관람했고, 세 작품 다 더할 나위 없이 근사했다. 실은 이번 마감을 앞두고 직접 '영화로운 여행'을 실천했다. 2024년 5월호 '작고 소중한 시네마 천국'에 소개한 강원도 강릉의 단편영화 상영관 '무명'에 모친 최명화 씨와 다녀온 것. 그러니까, '영화의 영화'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무명의 식구와 플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난여름을 추억한다. 강은주

바다란 그런 곳

반가운 바다였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게 6월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이니, 그리 아득한 일도 아니건만. '테마 여행' 취재를 위해 울산 남구에 와서 또 한 번 동해를 눈에 담았다. 장생포 아뜰스테이 옥상에 올라 장생포항을 눈앞에 두었을 때, 묘한 감정이 일었다. 마침 해가 기울 즈음이라 감성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옥상 벽 한편에 타일 조각 여러 개가 붙어 있었다. 이곳에 머물다 간 예술가들이 남긴 흔적이라 했다. '장생포 한 조각 남' '아트와 함께'... 짤막한 문장을 더듬어 읽다가 한 문구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괴로운 사람이 바다로 가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본 듯하다. 태초에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물에서 살았노라고. 아주 먼 고향이 바다여서 그런 것일까, 장생포 풍경과 문장에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은 여정이었다. 남혜림

힘을 써야 힘이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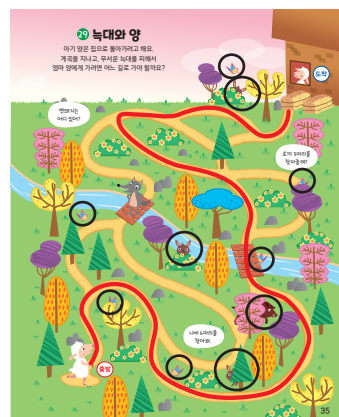
지치고 피곤하다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데에만 주력했던 시기, 한 영상에서 본 배우의 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힘을 써야 힘이 나요." 이후 의식적으로 더 움직이려 했던 기억이 난다. 8월호 마감을 끝내고 기력이 쇠한 채 홍콩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공진단 하나를 소중히 쥐고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온종일 걷는 일정에도 신기하게 힘이 났다. 이달 '미니 인터뷰' 기사에서 앞서 말한 영상에 등장한 김신록 배우의 정형화되지 않은 실험적인 공연과 멋진 철학을 소개해 기쁘다. 이런 보람 덕분에, 눈이 감기는 중에도 명멸하는 반딧불이 같은 생각을 간신히 글로 옮겨 적는다. 힘이 있지만 없는 상태, 없지만 있는 상태. 무와 유의 경계를 지우며 그저 순간에 충실해 본다. 여기서 순간이란,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다. 김수아



Puzzle



94쪽 '퍼즐' 정답



WONJU

맛, 정성, 따스함
원주만두축제

WONJU MANDU FESTIVAL



2024. 10. 25. ~ 27.

MANDU